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贏… 경영 리스크 해소

법원 “상속협의 기망행위 없어”
세 모녀, 상속회복 청구소송 패소
LG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전망
원고측 항소 가능성은 열려있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은 (주)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관련기사 4면>

김 여사와 두 딸은 (주)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다.

세 모녀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설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설 연휴를 나흘 앞둔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장을 보고 있다. /뉴스스

로 아는 등 정확한 이해와 동의없는 상태에서 상속협의가 진행됐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작으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니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LG 소송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 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상속 재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 재분할이 이뤄졌다면 (주)LG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불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각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HBM4 세계 첫 양산 출하 ‘반도체 왕좌 탈환’

최선단 공정 1c D램 선제적 도입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 수율 확보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며 시장 주도권 탈환에 나섰다. 그간 HBM3 E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 선제 양산에 성공하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회사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HBM4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c D램을 적용하는 한편 베이스 다이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4나노 공정을 적용했다.



삼성전자 HBM4 제품. /삼성전자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HBM4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전작 HBM3E의 최대 핀 속도인 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이며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을 전작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사 요구 수준인 3.0TB/s를 상회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HBM4는 12단 적층 기술을 통해 24GB~36GB의 용량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제품 일정에 맞춰 16단 적층 기술을 적용해 최대 48GB까지 용량을 확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데이터 전송 I/O(Input/Output) 핀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열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어 다이에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TSV 데이터 송수신 저전압 설

계 기술 적용과 전력 분배 네트워크(PDN) 최적화를 통해 전 세대 대비 에너지 효율을 약 40% 개선했으며, 열 저항 특성은 약 10%, 방열 특성은 약 30% 향상 시켰다.

삼성전자의 HBM4는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정적인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고객사는 삼성전자의 HBM4를 통해 GPU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서버·데이터센터 단위의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HBM 매출이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HBM4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에 이어 HBM4E 도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샘플 출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커스텀 HBM도 2027년부터 고객사별 요구에 맞춰 순차 샘플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들어간 것으로 판단”
▲ 안철수 “매물 압박하면서 대출은 꽁꽁… 현금 자산가들만 기회”

/사진 뉴시스

▲ 송언석 “민생 버리고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 유감”
▲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 “위풍당당 대구 시대 열겠다”

▲ 하태경 “정치인 아닌 시민 안희정에겐 두 번째 기회 줘야”
▲ 국방부, 설 연휴 긴급상황 대비 장비 460대 지원… 군병원 24시간 운영

독자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16~18일 신문입니다

정부, 전방위 물가 관리… 식품기업, 비용절감 등 생존 경쟁

물가억제 정책·담합 수사 등 압력 올림픽 특수 저조… 실적개선 비상 식품업계 “원가 상승환경 고려해야”

식품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사정기관 협동 점검과 담합 수사,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가격 인상 여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매출을 끌어올린 올림픽 특수마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으로 버티는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11일 출범시키고 설탕·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유통 단계별 거래 구조와 시장 집중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먹거리 물가 점검을 직접 지시한 지 6일 만에 구성됐다.

이미 압박은 현실화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유통업체 103곳을 조사해 탈루 소득 3898억원을 적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주류·빙과·라면 업종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

/뉴스

에서만 약 1500억원이 부과됐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리베이트 약 1100억원을 광고비로 처리한 정황이 포착돼 1000억원의 추징금을,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았다.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제분업체 7곳은 약 5년간 6조원 규모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됐고, 해당 3사 역시 약 4년간 3조2715억원 규모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 제재와 부당이익 환수, 추가 과세까지

검토 중이다.

업계는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담을 호소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담합 단속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원가 상승 환경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단순 물가 억제 중심 정책이 반복되면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인하와 할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5% 인하 내렸고 대한제분·사조동 아원·삼양사 등도 4~6% 수준 인하를 결

정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원액 가격이 2022년 대비 22.6% 하락했지만 라면 가격은 7.4% 상승했고, 빵 물가지수도 19.4% 올랐다. 대두 가격 역시 41.3% 하락했지만 대두 유가격 하락폭은 19.2%에 그쳤다. 기업들은 인건비·물류비·에너지 비용과 환율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으며, 빙그레·롯데월푸드·오뚜기 등은 20~30%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보다 비용 상승이 이익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내부 긴축에 나섰다. 생산 공정 효율화, 원부자재 공동 구매, 저수익 품목 정리, 마케팅 비용 축소, 신제품 출시 속도 조절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원가 부담이 높은 일부 맥주 제품(생맥주)을 단종했고, CJ제일제당은 비핵심 자산 유동화와 예산 제로베이스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까지 악화됐다. 지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두고

업계에서는 “예전 같은 특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국가대표 경기 당일 치킨·피자 배달 매출이 평소보다 20~30%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국민 관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효과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종합편성채널 단독 중계로 시청 접근성이 낮아지고 주요 경기가 새벽 시간대에 편성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기업 마케팅 참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유지한 곳은 CJ그룹, 오비맥주 카스, 파리바게뜨 정도다. CJ그룹은 선수단 도시락 식재료 지원과 코리아하우스 홍보관 운영에 나섰고, 파리바게뜨는 전국 매장에서 응원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오비맥주 카스는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림픽 특수 기대 감도 낮아진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워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대다수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비용 흡수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론은 의식해 내부 비용 절감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박정원 회장, 에너지 분야 등 현장경영 분주

〈두산그룹〉

창원·인천 등 주력사업장 방문
“AI 대전환기, 새로운 성장기회”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1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 제작 중인 발전용 가스터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그룹

해서 확대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총 16기를 수주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와트(MW)급 대형 가스터빈 5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첫 해외 수출 성과를 거뒀다.

SMR 분야에서도 글로벌 협력이 이

어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 주기기와 핵심소재 제작을 맡으며 글로벌 SMR 파운드리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엑스-에너지가 발주한 SMR 16기 주기기와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뉴스케일파워가 위탁한 초도 물량도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일에는 두산밥캣 인천사업장을 찾았고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 생산 제품의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공장 내 전시된 전동·수소장비와 지게차·생산라인,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둘러보며 주요 부품 수급 상황과 신제품 상용화 일정 등을 확인했다. 박 회장은 인천, 창원 등의 작업 여건을 꼼꼼히 살피면서 임직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해 각별히 당부했다.

/원광희 기자 wkh@

공정위, 설탕 가격담합 철퇴 3개 제당사 과징금 4083억

담합사건 역대 두번째 규모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판매 가격을 담합한 3개 제당사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사업자당 평균 1361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가 2021년 2월 ~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B2B 거래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집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이를 신속히 반영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력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인하 폭을 축소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거나, 인하 자체를 지연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본부장급에서는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과 협력 방안을, 실무선에서는 월 최대 9차례 모임을 통해 가격 변경 시기·폭, 거래처별 협의 전략, 협상 실패 시 대응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을 조율했다.

각 수요처 협상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주도했다. 예컨대 특정 음료·

과자 업체별로 CJ·삼양·대한제당이 역할을 나누 협상을 이끌고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설탕 산업은 고율 관세와 대규모 설비 투자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은 과정 시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악용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담합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판단했다.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부산제당 등 군소업체 몇 곳이 진입하기도 했으나 곧 탈락돼 주로 현재 제당 3사에 의해 유지돼 왔다.

특히 이들 기업은 2007년 동일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담합을 감행했다. 2024년 3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초기 현장조사에서는 명확한 협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내부 보고자료와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약 1년간 수요처 조사를 병행한 끝에 구체적 담합 구조를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악랄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이라며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태원 “상의 행사 전면중단… 임원진 전원 재신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문성 강화 등 조직쇄신 나서

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제시한 쇄신 방안은 다섯 가지다. 우선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균형발전·양극화 해소·관세 협상·청년 일자리·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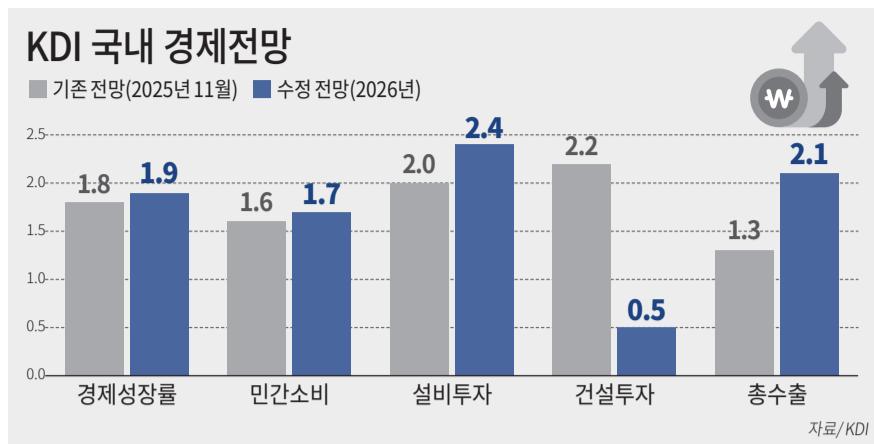
조직 전반의 반성과 성찰을 위해 당분

간 상의 주관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주요 과제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원광희 기자



韓 성장률전망 1.9%로 상향 '고환율'에 금리인하는 저속

KDI, 반도체 등 수출 반등 하지만
환율변동에 통화정책 균형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성장을 전망치를 1.9%로 상향했지만 같은 전망표의 원·달러 환율 가정은 1456원으로 더 높아졌다. 수출 반등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도 달러 수급과 환율 변동성이 남는 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2026년 성장을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1.8%)에서 0.1%포인트(p) 올린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을 상향 요인으로 들었다.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본 대목은 '환율 전제'다. KDI는 11월 전망 당시 원·달러 환율을 1323원 수준으로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1456원 수준(1월 평균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으로 상향했다. 성장 숫자가 좋아져도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고착되면 수입물가·기대인플레이션 경로와 금융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정책 판단의 앞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수출은 개선, 내수는 더딘' 흐름을 보이면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환율·금융안정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더 어렵게 잡아야 한다. 한은 입장에서는 '인하를 할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구조다. 환율 전제 상향

은 수입물가 둔화 속도와 기업 원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성장 개선의 체감이 얼마나 확산될지도 변수다.

실물 지표에서는 수출이 반등 신호를 보냈다. 관세청 잠정치 기준으로 2월 1~10일 수출은 21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37.6% 급증해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월초 잠정치 특성상 조업일 수와 기저효과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어, 시장은 증가율 자체보다 '흐름이 이어지느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들어오는 만큼 '어디로 빠져나가느냐'도 동시에 가격에 반영된다. 기업의 해외투자, 배당·이자 지급, 거주자의 해외자산 매입 등 달러 수요가 겹치면 수출 개선이 곧바로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환율 가정이 높아졌다는 것은, 같은 성장 경로를 전제하더라도 달러 수급이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다. 시나리오가 전망치에 녹아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외환 완충 여력의 흐름도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외환보유액은 4259억 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1억 5000만달러 감소했다. 감소 요인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됐다. 외환보유액은 고환율·고변동성 국면에서 완충 여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김주형 기자 gh471@

구조적 상승 vs 과열 '의견 분분' 천스닥 시대, 동학개미 투자 고민

NH투자증권, 올해 목표지수 1300
시장 과열에 1500 달성 전망도
현대차증권 "상승과정 PER 확대
지수차원 펀더멘탈 개선 제한적"



12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상승한 5425.39에 출발했다. /뉴스

직장인 윤모(42·서울 서초동)씨는 지난달 9일 에코프로 주식을 3000만원 어치 샀다. 올해 초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연 그는 에코프로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두 종목만 꾸준히 추가 매수해 총 4800만원을 투자했다. 윤씨는 "정부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라며 스타트업 창업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코스닥 3000 달성'이란 목표를 제시했고, 기획예산처는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벤처·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 운용평가지침을 변경했다.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동학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초체력 보다는 정부의 정책 이슈와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이른바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심리에 의해 지수가 오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밀드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21.67%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분의 절반을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달에는 24.2% 상승하면서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5위권에 해당하는 랠리를 보였다.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 시대를 연 일등 공신은 코스닥150 관련 상장지수 펀드(ETF)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닥150 관련 ETF에 자금

이 몰리고 있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상품은 'KODEX 코스닥 150'(4조8992억원)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조9596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두 상품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로 KODEX 코스닥150을 2조9178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1조7699억원씩 순매수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주요 요인으로 ETF 수급 효과가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은 580조원에서 637조원까지 약 57조원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이 기초체력 보다 정책 이벤트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파마리서치에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 이모(35)씨는 결국 지난 6일 보유한 주식의 거의 전량을 매도했다. 지난해 6월 44만원대에 올라탄 이씨는 "이제는 마음고생을 안 하고 싶어서 전부 팔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침없이 올라가는 다른 코스닥 종목 주거를 보고 "단타로 들어가야 하나 혼란스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을 '달리는 말'로 평가한다.

김종영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 코스닥 목표 지수를 1300포인트로 상향 제시했다. 특히 시장 과열 시나리오에서는 1500포인트 달성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유입 기반 조성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스닥 벤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 혜택 신설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금 의무화 등이다.

하지만, 짙어진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코스닥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2.83%로, 보통 연속 2%대가 이어지고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이의 개선보다 지수 상승 과정에서 PER이 함께 확대되는 흐름으로, 지수 차원의 펀더멘탈(기초체력) 개선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닥은 실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기대감,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도 "다만 미국발 불확실성이 차의 실현 유인을 키울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시민이 직접 봄은
의정부
8경(景)

의정viewtiful

망월사

기암절벽 속 숨은 고찰, 망월사

미술도서관

국내 최초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 미술도서관

수락산 도정봉

화강암 능선이 펼쳐진 경관, 수락산 도정봉

음악도서관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 음악도서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 구석구석을 안다,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예술의 전당

감동과 열정! 의정부 문화예술의 중심,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제일시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수 재래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회룡사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을 만나다, 회룡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맞춰 잔금·등기기한 최대 6개월 부여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재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 규정 개정 실거주 의무 유예 서류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판단, 허가신청 기준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잔금·등기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또 매매계약 인정 기준과 토지거래허가 주택의 실거주 적용 방식,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무주택자 제한 여부, 전세대출 회수 유예 기준 등 세부 보완 규제도 함께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한다.

-오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나?

"허가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아파트.

허가 대상 주택도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아울러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6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정이다."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허가가 가능한가?

"이달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 이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가 이뤄지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오는 12일 신청 시 다음 달 10일 이전 허가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유예 조치는 매도인이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은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함께 다주택자·무주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요구된다."

-매수자의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다."

-임대 중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책으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유예적으로 인정된다."

-전세대출 이용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로도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어려운 것 아닌지?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전세대출 회수는 유예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김연세·성채리 기자 kys@metroseoul.co.kr

구광모 회장, 상속분쟁 승소… 리더십 증명 속도낸다

〈LG그룹〉

지주사 (주)LG 지분 15.95% 지켜
엑사원 중심 디지털 전환 등 집중
핵심 계열사 체질개선도 박차

'인화(人和)의 상징' LG그룹의 전례 없는 상속 분쟁은 구광모 회장이 1심에서 승소하며 진정국면으로 가게 됐다. 75년간 이어온 기업의 '장자승계' 원칙을 4대째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인공지능(AI)·바이오·클린테크 등 신성장 사업에 속도를 낼 기반이 공고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LG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최상단에 지주사인 (주)LG가 있으며 이 회사의 다수 지분만 취득하면 그룹 내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회장은 이번 승소로 그룹 지배의 핵심이 되는 지주사인 (주)LG 지분 15.95%를 온전히 지켜내며 경영권 리스크를 덜어냈다. 만약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줘 법정 상속 비율(1:5:1:1)대로 지분을 재분할했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1%로 주저앉는 반면 세 모녀는 14.09%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제 법적 문제를 해결한 구광모 회장은 앞으로 경영 성과를 통한 리더십 증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중심으로 그룹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기속화한다.

화하고 제조와 연구, 서비스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또 물류·산업용 로봇 영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미를 중심으로 한 A I 로봇 스타트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핵심 계열사들의 체질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OLED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 5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 이노텍은 영업이익이 6% 가량 줄긴 했지만 성과금 등 일시적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로봇용 센싱 부품, 자율주행 라이다(LiDAR) 등 미래 육성 사업도 가속화한다.

LG화학과 계열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변화도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전기차 시장 둔화로 수익성이 감소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BIO) 부문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 발굴, 원격 의료 등에서 스타트업·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넓히며 사업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 끝지 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며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

마이크론 'HBM4 탈락설' 부인… 3파전에도 국내기업 중심 무게

삼성전자, 세계 첫 HMB4 양산 출하 SK하이닉스도 이달 중 출하 전망 국내업체, 초기 시장 주도권 이어갈 듯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엔비디아 공급망 탈락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강 체제로 여겨졌던 차세대 HBM 경쟁이 3파전 구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공식화하는 등 공세적 태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주도권은 여전히 국내 기업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리서치 기업 올프 리서치가 주관하는 반도체 콘퍼런스에서 "이 기회를 빌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HBM4 관련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HBM4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달리 마이크론의 HBM4가 엔비디아가 요구한 수준의 속도 등 성능을 맞추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발언은 이같은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강 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HBM4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

족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사가 그간 HBM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만큼 차세대 경쟁에서도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12일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반도체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 산업 표준 기구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제품에는 최신 단 공정 1c D램(10나노급 6세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 또한 HBM4 최적화 단계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출하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주 제손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미국에서 만나 HBM4 공급과 관련한 막바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사는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4공장(P4)에 내년 1분기까지 월 10만~12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신규 생산 라인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투자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마이크론 역시 두 자릿수 점유율을 유지해왔기에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라면서도 "국내 업체들이 이미 대형 고객사와의 협력 경험과 양산 안정성을 축적해 온 만큼 초기 시장 주도권은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

특별한 마음을 담은 "혜택 많이 받으세요"

좋은 먹거리만 주고 싶은 농업인의 마음
명절 준비로 고민 많은 국민의 마음
모두를 응원하고 싶은 농협의 마음

농심천심으로 하나된 마음
NH농협카드로 만나 보세요



NH농협카드와 함께하는 농심!천심!동심! 특별 할인 행사

농협 허나로마트

최대 65% 즉시 할인

농축수산물, 가공 생필품 중 지정 상품

NH농협 개인카드 결제 시
10%할인 20%할인

농협몰(NH싱싱몰)

최대 20% 즉시 할인

농축수산물, 가공 생필품 중 지정 상품

NH농협 개인카드 결제 시
10% 할인 20% 할인

NH-OIL 농협주유소

5% 청구 할인

NH pay에서 캐치 후 3만원 이상 결제 시

*1인 최초 1회, 3천 원까지 *선착순

자세히 보기



-하나로마트와 NH상씨돌이 경우 매장 사정에 따라 행사상품, 할인율 등 행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 유무는 점별 상이 할 수 있어 매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결제 전 할인대상품목 및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당 1인 개수 제한 있습니다. - NH농협개인카드로 결제 시 할인 적용 (비씨기프트, 선불비우처 제외) - 농협주유소 청구할인은 캐시 후 결제하는 최초 결제건에 한하여 1인당 1회 지급됨 - NH농협카드 기준 기맹점에서만 혜택 적용 - 본 행사는 NH농협카드 및 제휴사 사정으로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상카드 NH농협카드 개인(비씨선불기프트제외) [연회비 : 0원~530,000원, 국내전용, 국내·외경용포함] • 이 광고는 2026.01.21~2027.01.20까지 광고성으로 게시 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카드고객상담센터(0644-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할 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적용 - 그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기준평균대출금리(기준금리) 및 시금율(현행기준금리) 제2026-02-01 ~ 2026-02-28]

NH농협카드

대통령 오찬·본회의 동시 보이콧… 설 직전 정국 급속 냉각

輿 재판소원법 등 처리 ‘강한 반발’
青 “협치의 자리, 기회 잃어 유감”
정청래 “국민·대통령에게 결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명절 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정국이 급랭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이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오찬 1시간 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헌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오찬 불참 의사를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

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의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라고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전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밝혔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꾼 진짜 이유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 합당 문제, 2차 종합특검 추천 등 ‘명청 갈등’의 해소의 장에 장 대표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도부 내부의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 대표의 불참 명분으로 법사위에서의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강행처리를 찾아냈고,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의 급작스러운 오찬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결국 이날 오찬 회동을 취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흥수석은 장 대표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된 것을 이유로 든 데 대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

회 일정, 국회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 또는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회동 취소 소식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무슨 결례나”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자태에 경악한다. 정말 노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대통령 주재 오찬 회동 불참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협치’ 국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워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첫 광주전남특별시장 놓고 중진 출마 러시

지방선거 돋보기

⑦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지역에 대규모 민관투자·지원 공약
김영록 지사·민형배 의원 2강 체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초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돼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재정 분권과 위상을 갖게 된다.

◆ 첫 통합시장 선거 기대감에 광주·전남 중진 대거 출마

광주·전남은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이개호(4선·전남 담양군·평군·영광군·장성군), 신정훈(3선·전남 나주시·화순군), 민형배(재선·광주·광산구)·주철현(재선·전남 여수시·갑)·정준호(초선·광주 북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전남에 대규

모 민관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55조 원 투자 유치를 이뤄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에너지 자주권 선언’과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하고 광주(AI·반도체), 전남 동부(소재 생산), 서남(RE100·해양물류), 농어촌(기본소득) 등 4대 권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치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이전, 한국에너지공대 유치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연결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재래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로 RE100을 완성해 기업과 일자리를 호남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 여론조사 결과 현직 지사 VS 의원 ‘2강’ 예측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대 광주·전남 통합 선거는 김영록 지사와 민형배 의원의 2강(強) 체제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9일 한국방송공사(KBS) 광주방송총국의뢰로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609명에게 통합특별시장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1%,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전남도지사 19%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그 뒤로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의원 8%, 주철현 의원 6%, 이개호 의원 4%,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

회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 모름이나 무응답은 13%였다.

◆ 전북지사 선거, 조혁당 공천권 배분에 한때 술렁

전북도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높은 가운데, 이원택(재선·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안호영(3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출마 선언을 하며 치열한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 전북도지사 공천권 배분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지사는 “그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지선 이후로 미루고 ‘선거 연대’에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야당 반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박수영 野 간사 “일방적 태도 규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

원법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위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영 특위 야당 간사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문제삼았다. 박 간사는 “저희는 그동안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 같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동혁당 대표가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고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했다.

반면, 정태호 특위 여당 간사는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박태홍 기자

AI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은행권, 금리 내리고 대출 연장 소상공인 명절자금 ‘87조’ 푼다

농협·기업·수협, 23.5조 공급
4대 시중 은행서 60.5조 등 지원
기준 금리대비 최대 2%p 인하

은행권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명절 기간에는 상품 확보,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일시적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소매은행은 올해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87조 1000억원을 공급한다. 3대 특수은행(농협·기업·수협)이 23조 5000억원(신규 9억·연장 14조 5000억원)을 공급하며,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60조 5000억원(신규 24조 5000억원·연장 36조원)을 공급한다.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4조 1000억원(신규 2조 5000억원·연장 2조 5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기존 대출 대비 최대 연 2.0%포인트(p) 낮게 책정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3월 4일까지 신규 대출 5조원 및 만기연장 5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목적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목적으로, 결제성 자금대출에 한해 최대 0.3%p 이내의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주요 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한다. 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권 ATM. /뉴스

대출 3조 5000억원 및 만기연장 5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목적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목적으로, 결제성 자금대출에 한해 최대 0.3%p 이내의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수협은행은 3월 4일까지 신규대출 5000억원 및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p까지 적용되며, 대출 상담은 영업점을 통해 진행한다.

4대 시중은행은 오는 3월 13일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각 은행이 신규대출 6조 1250억원과 9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취급하며, 최대 금리 감면 폭은 1.5%p다. 단, 금리 감면폭은 기존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만큼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신규대출 4000억원과 만기연장 4000억원을 공급한다. 오는 3월 19일까지 상담 및 대출을 운영하며, 최대 금리 감면 폭은 1.0%p다.

iM뱅크는 오는 3월 6일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대출 5000억원을 공급하며,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을 종합해 적용한다.

광주은행은 이달 27일까지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며, 전북은행도 오는 25일까지 신규대출 2500억원과 만기연장 2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metroseoul.co.kr

기업은행은 오는 3월 5일까지 신규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서 신권 뽑으세요”

은행권, 13~14일 이동점포 운영
부산·동대구역에서도 신권 교환

은행권이 귀성객이 집중되는 오는 13~14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공한다. 부산역과 동대구역에는 기차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한 이동점포가 운영되며, 주요 공항에서는 국·내외 여행객을 위해 환전소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 수도권 휴게소에 ‘이동점포’ 출점
KB국민은행은 13~1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13일에는 신권교환만 가능하며, 14일에는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13~14일 이틀 동안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연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한 금융업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13~14일 양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13~14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출점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양일간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13~14일 양일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ATM을 이용하거나 신권을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13일 하루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덕평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신권교환을 실시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ATM 이용은 불가하다.

◆ 지역 주요 휴게소에

BNK부산은행은 13~14일 양일간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영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iM뱅크도 13~14일 이틀 동안 동대구역 광장에서 신권교환을 제공하고 ATM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iM뱅크는 13~14일 이틀 동안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동명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출점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한 금융업무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13~14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은 13일에만 가능하며, ATM은 13~14일 양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오는 13일 하루동안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백양사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신권교환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ATM 이용은 불가하다.

전북은행은 13~14일 양일간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여산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13일에는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고, 14일에는 ATM만 운영한다.

◆ 부산·동대구역에서도 신권 교환

BNK부산은행은 기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해 오는 13~14일 양일간 부산역 광장에서도 신권 교환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iM뱅크도 13~14일 이틀 동안 동대구역 광장에서 신권교환을 제공하고 ATM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연휴 기간 동안 내 입·출국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 내 은행 환전소도 지속 운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인천공항에서 환전소를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김포공항 및 청주은행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iM뱅크도 대구국제공항에서 환전소를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안승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곳 ‘우대 수수료율’

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업체 대상
가맹점당 평균 41만원 돌려받을 듯

오는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상반기(1~6월)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2만5000곳 중 95.7%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 하위 가맹점 193만8000곳,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마찬가지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4~1.45%, 체크카드

는 0.15~1.15%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 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5만9000곳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우대 수수료율이 결정된 가맹점에 대한 총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빗썸 오지급 URL 문자 ‘스미싱 주의보’

금융위 “보상금 관련 메시지에 URL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보상안내의 URL 링크는 사기이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빗썸의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보상안내의 URL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스미싱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 오지급 보상금 안내를 사칭해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보상금 관련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고객 안내를 할 경우 메시지에 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배너 링크나 앱 푸시 등 유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빗썸 역시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줄쳐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이 탈취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등으로 조작해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신고하려 해도 통화가 가로截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정진완 우리은행장(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AI 기반 내부통제·안전관리 나서

내달부터 전 영업점 단계적 적용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IP CCTV 중앙집중화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구현했다.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 영업점 CCTV 영상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 영상분석을 활용해 ▲고액 인출·계좌이체 등 중요 거래 시 이상징후 탐지 ▲CCTV 기반 현금계수 결과 자동 추출·저장 ▲내금고·기계

실 출입 시 2인 1조 원칙 준수 여부 감시 등 주요 내부통제 기능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본점에서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연회를 열고 실제 운영 환경을 점검했다. 우리은행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 영업점에 대한 24시간·365일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해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업점 자체 점검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세룡 우리은행 업무지원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와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미래 모빌리티 경험 공유

'시흥 서비스센터' 새롭게 단장
3D 등 침단기술 기반 공간 조성
체계적인 EV 정비 서비스 제공

기아의 역사가 담긴 시흥서비스센터가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로 새롭게 태어났다.

기아는 차량 관람부터 시승, 구매, 정비, 브랜드 경험까지 한자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복합 체험 거점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는 서울 강서, 인천, 부천, 광주, 원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선보인 복합 체험 거점으로, 기존 시흥 서비스센터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2만 1500m²(약 6504평) 규모로 조성됐다. 기아는 이곳에서 확장된 미래 모빌리티 체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구매 및 서비스 경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 시흥 서비스센터는 영등포와 부산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좌)외관. (우)내부



에 이어 1957년 5월 기아의 3번째 생산 시설로 준공된 시흥공장이 있던 곳이다. 자전거 제조공정의 완전 기계화와 주요 원자재인 파이프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륜 오토바이, 삼륜차, 사륜 트럭에 이르기까지 기아의 현재를 만들어낸 제품들을 잇달아 생산한 터전이었다.

기아 시흥공장은 이후 1977년 11월 서

비스센터로 전환됐으며 약 2년여 간의 새 단장을 거쳐 플래그십 스토어로 거듭나게 됐다.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는 고객 체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됐다. 대형 미디어 월 기반 '3D 컨퍼미터'를 통해 차량 내·외장 구성과 도어·트렁크 개폐, 방향 지시등 작동 등을 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인근에는 '멀티 콘텐츠 보드'를 배치해 차량 제원 정보와 컨퍼미터, 뉴테크 시뮬레이터, 기아 유튜브 콘텐츠 등을 한 번에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컬러 컬렉션'에서는 EV9, K9, K8, 카니발 등 4개 차종의 외장 컬러와 내장재 실물 샘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방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공간도 새롭게 개선했다. 또 신차 출고 고객을 위한 차량 인도 전용 공간 '기아 직업 라운지'도 조성해 차량 공개와 품질 검수 후 신차를 인도하고 차량 사용법과 기아 앱 사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기차 이용 고객을 위한 정비 인프라도 구축했다. 절연 성능을 강화한 EV 정비 작업대와 고전압 배터리 전문 작업장, 폐배터리 보관시설 등을 갖춰 안전하고 체계적인 EV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기아 관계자는 "시흥 플래그십 스토어는 기아가 바라보는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고객 경험과 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AHRI '퍼포먼스 어워드' 수상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등 6개 제품군
"미국 등 글로벌 공조시장 본격 공략"

LG전자의 고효율 냉난방 공조솔루션 이 글로벌 무대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고효율 히트펌프와 철저 등 고효율 냉난방 공조솔루션이 9년 연속으로 미국냉동공조협회(AHRI)가 수여하는 '퍼포먼스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AHRI는 매년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 등 분야별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제품군 별로 각 제조사의 제품을 무작위 선정, 제품의 실제 성능이 사양과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평가한다. 평가대상이 된 모든 제품이 최근 3년 연속 1차 성능 평가를 통과해야만 해당 제품군에서 퍼포먼스 어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 상은 철저한 검증 및 평가 과정으로 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매년 퍼포먼스 어워드를 수상하며 차별화된 냉난방공

조(HVAC) 솔루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VRF) ▲공랭식 냉각시스템(ACCL) ▲수랭식 냉각시스템(WCCL) ▲공기조화기(AHU) ▲AHU 및 철러 열교환기(ACH C) ▲가정용 히트펌프 온수기(RWH) 등 6개 제품군이 수상했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전자의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VRF) 대표제품인 '멀티브이 5(Multi V 5)'는 독자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로 구현한 공기 열원 히트펌프 기술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3단 압축기술로 난방효율을 극대화했으며, 냉난방 운전 시 최적의 냉매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켰다. 혹한·혹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해 겨울철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북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LG전자의 공랭식 스크롤 철러는 인버터 스크롤 컴프레서를 적용한 고효율 상업용 제품으로 옥상 등 좁은 실외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냉각수를 이용해 응축열을 제거하는 수랭식 철러는 우

수한 운전 효율이 특징이다. 중대형 빌딩의 중앙공조, 지역 냉/난방, 반도체 공정의 클린룸, 데이터센터 냉각 등의 공정 냉각용으로 사용된다.

안정적인 운수공급과 난방 효율성으로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은 가정용 히트펌프 온수기는 올해 처음으로 퍼포먼스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LG전자 HVAC 제품과 솔루션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핵심 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로부터 비롯된다. LG전자는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와 모터를 자체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또 열교환기, 인버터, 히트펌프 등 HVAC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R&D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까다로운 AHRI의 성능평가에서 9년 연속 인정받은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신(新) 방산 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함정 가상 이미지. /포스코

포스코, 함정용 고연성강·방탄강 개발

해군 차세대 함정 성능개선 기대

포스코는 함정용 고(高)연성강과 방탄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 1월 한국선급(KR)으로부터 선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강재 개발부터 용접성 검증, 군함 방호 성능 확보까지 전 과정을 검증해 얻은 결과다.

포스코가 이번에 개발한 고연성강은 기존 조선용 후판 강재 대비 연신율을 35% 이상 향상시킨 강재다. 실제 함정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충격 흡수율은 약 58%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선박이나 부유체와의 충돌 시 함정의 변형량을 극대화해 손상을 최소화하고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포스코는 함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조선용 후판 강재 대비 두께를 약 30% 줄인 방탄강을 개발했다. 함정 상부의 조타실, 레이더, 첨단 무기체계 집중 구역 등에 방탄강을 적용해 외

부 위협으로부터 방호 성능을 확보하는 한편, 상부 구조 경량화를 통해 선체 흔들림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함정 복원력 개선에도 기여한다.

이번 성과는 향후 대한민국 해군 차세대 함정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조선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남미·동남아시아 해군 함정, 미해군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및 건조 사업 등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해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해군 함정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화학-휴롬, 친환경 주방가전 개발 '맞손'

착즙기 등 PCR ABS 소재 적용

LG화학이 글로벌 주방가전 기업 휴롬과 손잡고 친환경 소재 적용 확대에 나선다. 기계적 재활용 소재 기반 고부가 합성수지(PCR ABS)를 앞세워 친환경 제품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1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휴롬과 'PCR ABS 개발을 통한 친환경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PCR은 사용된 플라스틱을 수거해 분쇄·혼합한 뒤 재생산하는 기계적 재활용 소재를 의미한다. LG화학이 PCR ABS 소재를 공급하면 휴롬은 이를 착즙기 하우징 등 주요 주방가전에 적용할 예정이다.

LG화학의 PCR ABS는 기존 ABS와 동등한 내충격성·내열성·기공성을 구현했다. 재활용 소재 가운데 세계 최초로 화이트 컬러 구현에 성공해 디자인 요소가 중요한 주방가전 제품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친환경 소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오른쪽)와 휴롬 이수민 마케팅본부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화학

재 적용 제품을 공동 기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마케팅 활동도 함께 전개 한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초저온 인장 시험' 기술력 입증

포항시험소 KOLAS 인정

현대제철은 포항시험소가 최근 국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초저온 인장 시험'에 대한 국제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KOLAS 인정은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교정 및 검사 기관의 역량을 인정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KOLAS 인정이 포함된 성적서는 국제시험인정협력기구(ILAC) 회원국 104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져, KOLAS 인정 취득은 국제적 기술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인정은 전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LNG 저장탱크 설계·시공 표준의 시험 요건을 충족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단순 시험 수행을 넘어 엄격한 온도 제어 조건까지 포함해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역량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성과로 현대제철은 소재 생산부터 국제 공인 성적서 발급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역량을 확보했다. 또한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던 인증서 발급 기간을 줄여 납기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혜온 기자

중기부, K-브랜드 플랫폼 해외진출 돋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제조·판매 기업들의 온라인 활용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유망 브랜드를 키울 플랫폼을 선별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바우처를 신설한다. 전용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물류비 완화 정책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온라인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 홍보·마케팅, 물류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중기부는 뷰티, 패션 같은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인정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하고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다. 선발된 플랫폼사는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에 쓸 수 있는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플랫폼 활용도를 높이고자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수출 유망 제품에 정부는 입점, 마케팅·홍보 시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사는 교육·컨설팅, 기획전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민간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 및 육성한다. 전략품목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새로 도입한다. /김승호 기자

LX인터, 인니산 탄소배출권 수익화 승인

인니서 하상 수력발전 사업 운영
감축 실적 국제적으로 이전·활용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소감축 실적을 국가 간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확보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하상 수력발전 사업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환경부로부터 파리협정 제6.4조(이하 파리협정 체제) 기반의 탄소 감축 사업으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파리협정 체제가 발효된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자국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한 첫 사례다.

파리협정 체제는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감축 메커니즘으로, 유엔(UN) 주도 아래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체제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수익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유엔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을 계기로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연간 31만 톤(t) 규모의 탄소배출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상 수력발전 사업에서 21만 톤, 팜농장 바이오가스발전 사업에서 10만 톤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종석 삼표산업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피지컬 AI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삼표그룹, 몰탈 생산공장 스마트화 속도

카이스트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 '맞손'

삼표그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몰탈 생산 공장의 스마트화에 속도를 낸다.

삼표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카이스트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와 '피지컬 AI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속련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몰탈 생산 방식을 탈피하고 데이터와 AI 기반의 공정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표산업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정부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기술 도입의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기계과 로봇이 시스템,

센서 등 환경을 인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카이스트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는 이 같은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삼표산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원재료 입고부터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최신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한다.

삼표산업은 올해 자동화 컨셉 확장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 공장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문에서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6대 은행에 中企 상생지수 도입

내년 배달앱 플랫폼 등으로 확대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방위산업 영위기업도 평가 추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안건
국수·냉면 제조기업 재논의 예정

동반성장위원회가 6대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점수로 매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배달·오픈마켓 등 플랫폼 업종, 방위산업 분야 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명단에는 총 25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당초 이날 안건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국수·냉면 제조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안건에 대해선 시장 통계 자료 보충 등을 위해 3월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제8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2026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안)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라 6대 시중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를 우선 도입한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생금융지수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 평가에



이달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86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동반위

들어간다.

2027년부터는 배달앱·오픈마켓 등 플랫폼사와 방위산업 영위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방위산업 기업은 한화오션, 현대로템 등 15개사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에는 ▲전기·전자 등 제조업 ▲건설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면세점 ▲통신 ▲정보서비스 ▲플랫폼사업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동반위는 또 동반성장지수가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지수평가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공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평가 체계 다변화, 지표 간소화, 공표방식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새 개편안은 2027년 지수 평가부터 작용한다. 2026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생금융지수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 평가에

생계형 적합업종인 국수와 냉면은 올해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수의 경우 생면, 건면 그리고 냉면은 건면, 생면, 숙면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은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장·생산시설 변경이나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 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는 허용키로 했다.

동반위 이달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 정책을 제도 중심에서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플랫폼·금융·방산 등 산업 전반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누적생산량 400만대

주요 품질 관리지표 최상위권 기록
혼류 생산 체계 구축으로 유연성 확보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르노코리아가 새로운 역사를 작성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00년 국내 출범 이래 26년 만에 부산공장에서 누적 생산 400만 대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내 D/E 세그먼트 생산을 책임지는 글로벌 허브로서,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호평 받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특히 국내 약 220만 대, 해외 약 180만 대의 차량을 출고하며 르노코리아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부산공장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차량은 중형 세단 SM5로, 총 95만 4000대가 생산됐다. 이어 SM3와 뉴산 로그가 각각 80만 5000대, 58만 5000대 생산되며 르노코리아의 실적을 견인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르노 그룹의 글로벌 핵심 생산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부산공장은 르노 그룹 소속 전 세계 20여 개 자동차 공장 중 높은 품질을 자



11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개최된 누적 생산량 400만 대 돌파 기념 행사에서 르노코리아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찰칵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부, 하부 고정 부품, 피스톤 링 등 확인이 까다로운 영역까지 자동으로 검사해 결합 여부를 판별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글로벌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필란트', '풀스타4' 등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차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은 기념 행사에서 "부산공장에서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임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며 "부산공장과 임직원들의 훌륭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400만 대 누적 생산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500만 대 생산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선택과 집중 통했다… 통신3사, AIDC 매출 2조 눈앞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새 수익 모델 삼고 작년 4조 투입
SKT, 2030년 매출 1조 시대 목표
KT, 센터 용량 500MW 이상 확대
LGU+, 초거대 AIDC 구축 나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본업인 통신 시장의 정체 속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필두로 한 신사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통신업체들의 2025년 연간 실적 분석 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AI 및 데이터센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 합계가 약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AIDC 연간 합산 매출은 1조9394억 원이다. 이는 전년(1조5250억 원) 대비 27.2% 증가한 규모다. 유무선 통신 본업이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AIDC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달리 생성형 AI의 방대한 데이터 학습과 추론을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연산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 인



통신 3사가 2025년 AIDC(AI Data Center) 사업을 통해 1.9조 원을 벌어들였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프라다. 통신업계는 AIDC 사업을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두고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각 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AIDC 매출 519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가산과 양주 데이터센터의 가동률 상승과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가 실적을 견인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설계·구축·운영(DBO) 사업 진출과 코

로케이션 서비스 확대를 통해 42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18.4% 성장했다. 공식 수치를 분리 공개하지 않은 KT의 경우, 자회사 KT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27.4% 성장한 99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AIDC 부문에서만 약 8500억~9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통신업체들이 단순한 네트워크 기업에서 AI 인프라 사업자

로 거듭나기 위해 단행한 과감한 투자 덕분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총 6조 4000억 원의 설비투자 중 약 60%에 달하는 4조 원을 AIDC에 집중 투입했다. 기지국 등 통신망 투자가 유지보수 성격의 비용 지출에 가까웠다면 AIDC는 구축 후 1~2년 내에 투자액의 25~30%를 매출로 회수하는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했다. 서버 래임대료 외에도 GPU 연산 지원 제공 전력 및 냉각 솔루션 등 부가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향후 투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AIDC에만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단일 센터 기준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초거대 AIDC 구축을 공식화했으며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용량을 500 M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컴퓨팅 수요 폭증이 통신사의 데이터 주권 확보 및 인프라 가치를 높였

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고성능 GPU 확보 경쟁과 막대한 전력 수급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통신 3사가 확보한 인프라가 단순 설비 임대를 넘어 실제 기업 고객들의 AI 전환(AX) 수요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흡수하느냐가 향후 'AI 대전'의 승패를 가를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에 가까웠다면, AIDC는 GPU 지원과 고효율 냉각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솔루션 사업"이라며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 AIDC 시장은 2025년 2364억4000만 달러에서 2030년 9337 억6000만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CAGR) 31.6% 성장할 전망이다. AI 워크로드 수요 증가와 하이퍼스케일 투자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의 빠른 도입, 에너지 효율적인 고성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한 성장 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국가대표 AI', 마지막 주인공 뽑는다

선정되면 엔비디아 B200 768장 지원 평가위 기준 과반 미달시 선발 안할 듯

대기업이 비운 '국가대표 AI'의 마지막 자리를 두고, 스타트업들이 막판 승부에 나섰다.

12일 오후 4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공모가 마감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차 평가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팀만이 선발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두 곳으로, 모두 AI 스타트업들

이다.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모례의자 회사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독자적인 '그룹별 차등 어텐션(GDA)' 기술과 LLM·LMM 개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릴리온랩스는 설립 1년 만에 70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력을 앞세워 기존 선발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자신했다.

정부의 선정 기준은 1차 때보다 한층 엄격해졌다. 이미 선발된 3개 팀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해야 하며, 글로벌 벤치마크 성과와 사전학습 과정 등 실질적인 개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 평가위원 과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아예 추가 선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정 시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B200 768장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1차 선발팀이 초기에 지원받았던 규모보다 크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선발팀이 기존 팀들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을 별도로 보장할 계획이다. 기존 팀들이 6월까지 모델 개발을 마친다면, 추가 팀은 7월까지 시간을 갖게 된다. 이후 8월에 합동 2차 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최종 승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경쟁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구글, 카카오와 안드로이드 XR 생태계 확대

전략적 협력… 모바일 경험 고도화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안드로이드 생태계 사용자 경험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카카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안드로이드 XR(확장현실) 기반의 AI 클래스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안드로이드 모바일 경험 고도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차세대 품목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설계와 온디바이스 AI 최적화가 핵심 죽이다.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XR 기반 AI 클래스에 맞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에 집중한다. 메시징·통화 등 실생활 밀착형 시나리오에서 자연어 기반 상호작용과 핸즈프리 방식을 구현해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스마트폰 중심 사용 패턴을 넘어, 웨어러블·글래스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AI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힌다.

모바일 영역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최적화 작업이 진행된다. 그 시작점이 '카나나 인(in) 카카오톡'이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경량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디바이스 내부에서 대화 맥락을 이해해 일정 브리핑, 정보 안내, 장소·상품 추천 등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요청하기 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포착해 먼저 말을 거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포함해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캐런 티오 구글 아시아태평양 플랫폼·디바이스 파트너십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구글의 최신 AI 기술과 한국 소비자에 대한 카카오의 혁신 역량을 결합하는 계기"라며 "모든 한국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AI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출국 전 폰 보안점검 받으세요”

‘디지털 안심 캠페인’ 운영
타 통신사 고객 이용 가능

SK텔레콤은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3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디지털 안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로밍센터에서 12일부터 14일 까지 출국을 앞두고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 건강 검진’을 제공해 스마트폰 보안 상태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안 점검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스웨트 번호 차단 방법, 미검증 앱 확인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해당 상담은



SK텔레콤 고객뿐 아니라 타 통신사 이용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스마트폰 사용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의 보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기획됐다. 고객이 인지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보안 설정이나 앱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할 경우 직접 설정을 돋는다. /김서현 기자

컴투스가 조직 운영 방식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꾸며 차기작 성과에 승부를 건다. 12일 컴투스는 ‘도원암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사 TF를 가동하고, 개발과 사업, 마케팅 간 벽을 낮춘 ‘원팀’ 체계를 구성했다.

TF는 사업 총괄을 맡는 김종창 컴투스 전무가 이끈다. 김 전무는 게임 업계 주요 회사에서 개발과 사업 경험을 쌓았고 2023년 12월 컴투스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TF 체계는 신작 추진 과정에서 부서별 의사결정 지연을 줄이고, 출시 준비와 글로벌 사업 전략을 동시에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빛나 기자

LGU+, 보이스피싱 대응 특별 대책 가동

악성 앱 설치되면 카톡 알림톡 발송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고객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추석 등 명절 연휴가 포함된 달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명절이 포함된 달의 범죄 건수는 32.5% 늘었다.

연휴 기간에도 자체 분석을 통해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고객에게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고객은 인근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팸 문자 유형을 AI에 학습시켜 차단을 강화하고, 고객은 ‘U+스팸 차단’ 앱을 통해 스팸 의심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시총 등 상장폐지 요건 대폭 강화… 코스닥 최대 220곳 퇴출

금융당국, 상장폐지 개혁안 발표
시총 기준 조기상향·공시관리 강화
'다산다사' 구조로 시장신뢰 회복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기준을 조기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는 등 4대 요건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기업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스

이 연명하면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을 앞당긴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요건은 올해 1월 40억원에서 150

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기준 계획 보다 빠르게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향 주기도 매년이 아닌 매반기로 조기화한다.

시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춰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하회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웃돌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도 차단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이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별 점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만 적발돼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4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 도동일하게 적용된다.

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담당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심사 3개팀에 신설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 규모로 가동한다.

코스닥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도 기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상장폐지 거쳐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방안이 반영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동전주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여개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과 함께 혁신기업 상장 지원 제도도 병행해 시장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시 거래 급증… 증권업계, 실적개선 '청신호'

지난달 일평균 거래 62조 돌파
연초 ETF 수익률 50% 웃돌아
일각선 과열 경계 목소리도

증권주 목표 주가가 잇달아 상향되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삼성증권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일회성 비용 영향이 크고 펀더멘털 훼손은 제한적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의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2162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은 전년 대비 76% 늘었고, 리테일 고객 자산 규모도 431조9000억원으로 1년 새 43% 확대됐다.

증권업종 강세는 ETF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1일 기준 증권업종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50%를 웃돌고 있다. 전날 기준 'TIGER 증권' ETF는 54.8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HAN

ARO 증권 고배당 TOP플러스' ETF와 'KODEX 증권' ETF도 각각 53.88%, 53.30%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파른 수익률에 개인 투자자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연초 이후 TIGER 증권 ETF에는 170억원이 순유입 됐고, HANARO 증권 고배당 TOP플러스와 KODEX 증권 ETF에도 각각 57억원, 208억원의 순매수가 몰렸다.

증권사 실적 기대 역시 업종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1.2% 증가한 1조9150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했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기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은 호실적과 배당 매력이 부각되며 목표주가가 약 20% 상향됐다. 키움증권은 NH투자증권의 목표주가를 3만2300원으로 제시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183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은 전년 대비 76% 늘었고, 리테일 고객 자산 규모도 431조9000억원으로 1년 새 43% 확대됐다.

증권업종 강세는 ETF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1일 기준 증권업종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50%를 웃돌고 있다. 전날 기준 'TIGER 증권' ETF는 54.8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HAN

ARO 증권 고배당 TOP플러스' ETF와 'KODEX 증권' ETF도 각각 53.88%, 53.30%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거래대금 급증은 증권업황 개선 기대를 더욱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 약 42조원, 넥스트레이드 약 20조 4000억원을 합쳐 62조원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89.1% 급증한 규모다. 고객 예탁금과 신용거래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나증권은 "1월 27일 이후 고객예탁금이 100조원을 상회해 6일에는 109조원을 기록했고, 신용거래잔고도 31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증권주를 오늘의 테마로 제시했다.

다만 증권주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증권사 위탁매매 부문이 국내 주식거래 수요와 시장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증권주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시 호황 국면에서는 금리 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허정윤 기자



iM증권, 지역사회 발달장애 근로인 지원
정호철 iM증권 경영전략본부장(왼쪽 세 번째부터) 정호철 iM증권 경영전략본부장과 조기형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증권

지난해 695개사 33.7조 유상증자

예탁결제원 3자 배정 절반이상 차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규모가 총 695개사, 33조69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년(719개사, 26조6790억원) 대비 증자 회사 수는 3.3% 줄었지만, 발행금액은 26.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6개사가 16조8538억원을 발행하며 전년 대비 금액이 98.8%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은 231개사, 4조7798억원으로 회사 수

는 소폭 늘었지만 발행금액은 7.2% 감소했다. 코넥스시장은 35개사, 3172억원으로 금액이 72.3% 증가했고, 비상장사는 373개사, 11조7449억원으로 8.7% 줄었다.

배정방식별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806건, 17조8477억원으로 전체의 52.9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주주배정 방식은 92건, 11조9268억원(35.42%), 일반공모는 119건, 3조9212억원(11.64%)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금액 기준 상위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조2188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고려아연(2조8336억원), SK이노베이션(2조원), 삼성SDI(1조 6549억원), 포스코퓨처엠(1조10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발행 주식 수 기준으로는 한온시스템이 3억4800만주로 가장 많았으며, 위니아아이드(1억6800만주),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억4700만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무상증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무상증자 발행규모는 총 66개사, 8억5900만주로 전년 대비 회사 수는 24.1%, 주식 수는 25.0% 각각 줄었다.

/허정윤 기자

국내 1군 시공사와 진행 중인 공동주택 프로젝트파이낸스(P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였으며, 복합리조트 담보대출과 공동주택 미분양 담보대출 등 추가 프로젝트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향후 다양한 국내 부동산 개발 및 실물 담보 대출을 포함한 대출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자금력과 대체투자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자산에 공동투자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의 유동성과 글로벌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동투자를 추진하여 대규모 조달 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준 골드만삭스 공동 한국대표는 "이번 협업은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자본과 전문성을 통해 한국의 실물 경제와 산업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농협, 드론·방제기 1000대 동원 연휴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총력

강호동 회장,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ASF·AI·FMD 등 확산위험 경고
명절 전후 '집중 소독의 날' 지정
농가 소독 지원용 무이자자금 편성

농협이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회상회의'가 열렸다.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호동 회장은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위험을 경고했다. 이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죽사 주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11일 가축질병 방역대책 회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이는 명절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의 방역 실행력 제고도 추진한다.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지원용 무이자자금 70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소독약품 등 5억 원 상당의 긴급 방역용품도 현장에 보급했다. 이 밖에 가축질병 발생 농가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 기한 연기 및 납입 유예, 재해특례 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병행하고, 피

해 복구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가축방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 연휴 기간 가축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또 가축질병 예방 및 민관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하에 공동방제단을 꾸리고, 축약농가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0 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국적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포스코 협력사, 3540억 우대보증 받는다

무보, 철강산업 수출금융 지원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포스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하며 철강 수출공급망 회복에 나선다.

무보는 12일 주식회사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 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무보가 포스코 중소 협력사에 총 354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관세장벽 강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대·중소기업 균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지원 기업은 티지에스파이프다. 이 회사는 포스코산 철강을 구매해 강관을 제조한 뒤 일본·미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자금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보증비율을 기준 90%에서 100%로 상향 ▲보증료(업체당 최대 4000만 원)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티지에스파이프는 "무보가 지원한 수출자금을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수출공급망강화보증'을 출시했다. 현재는 포스코 외에도 현대차·기아, HL만도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총 1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협력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보는 향후 조선산업을 비롯해 소비재, K-뷰티 등 국가 전략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으로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에 3%p 이자 지원

산업부-KIAT, 이차보전 지원사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은

행에서 빌리는 신규 대출 자금(기업당 최대 15억 원)에 대해 최대 3%포인트(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기업별 대출심사 후 확정)'에서 정부 지원금리(이차보전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차보전율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모두 3.0%p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다.

지원 대상은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광양 등 지난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지역별 접수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광양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 포항은 포항테크노파크, 서산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접수를 맡는다.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11곳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위해 요금 합리화 당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푸르내마을 방문
농촌관광 준비상황·체험시설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각지 농촌체험마을을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목적이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민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및 안전한 운영 등의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12일 경기 연천의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했다.

그는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계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경기 연천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숙박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등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과 연계해 ▲농촌관광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를 비롯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 韓 산재의료대상 수상자 선정

동해병원 김홍주 병원장, 취임 이후 영동권 최대 규모 재활전문병원 안착



대에도 기여했다.
김 병원장은 외과 응급 수술과 야간 응급실 근무를 차저하며 의료 현장의 최일선을 지켜왔고, 지난해에는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동해병원 김홍주 병원장(사진)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전국 15개 산재 병·의원 의료진 중에 산재환자 치료와 직업·사회복귀 지원,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홍주 병원장은 2019년 6월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을 강원 영동권 최대 규모 재활전문병원으로 안착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소화기전문센터 개설과 내시경 실 확장, 최신 장비 도입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산재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지난 2023년 개원 40주년을 맞아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 영역 확

/세종=한용수 기자

설 연휴 휴게소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점검

기후부, 용인 휴게소 찾아 현장점검 6일간 17곳서 이동형 충전서비스 운영

정부가 설 연휴 직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연휴 기간에는 이동형 충전서비스를 가동하는 등 비상 대체 체계에 돌입한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영동고속도로 용인 휴게소(인천방향)를 찾아 관계기관 및 충전업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를 둘러보고, 충전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후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167곳의 충전시설 549기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점검 중이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장 인

력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달 하순 이후 전국 수소충전소 238곳(고속도로 휴게소 39곳 포함)을 대상으로 ▲정상가동 여부 ▲일일 점검 이행 ▲사고 대응 비상 대응계획 ▲연휴 기간 운영계획 등을 살폈다.

13일부터 6일간은 고속도로 휴게소 17곳에서 이동형 충전서비스(총 38기)를 운영한다. 전기차 1대당 20kW(약 100km 주행분)의 전력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호현 차관은 "설 연휴 기간 국민이 동이 집중되는 만큼, 전기·수소차 충전 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사전 점검과 긴급 대응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고교당 제주 2.5명·강원 2명… 지역별 의대진입 격차 커진다

지역의사제 도입 충청 2.1명·호남 2명 전국 평균 학교당 1.7명으로 늘어 동일대 전형별 합격선 차이 커질 듯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권 고교당 의대 합격 가능 인원이 1명에서 2.5명으로 늘고 강원권 1.1명에서 2명, 충청권 1.3명에서 2.1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종로학원이 12일 교육부의 지역의사제 증원(안)과 2026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를 토대로 전국 일반고 1112개교와 지역의사제 대상의대 32개대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만 놓고 보면 가장 유리한 지역은 호남권이다. 2026학년도 기준 호남권 4개 의대가 지역인재로 352명을 선발하고, 권역 내 일반고가 230개교여서 학교당 평균 1.5명 합격이 가능한 구조다. 이어 ▲충청권 1.3명 ▲대구

No	지역	학교수 (일반고)	학교당 평균 합격인원(일반고)		증감
			현행(지역인재)	지역의사제 도입 후 (지역인재+지역의사제)	
1	제주	22	1.0	2.5	1.6
2	강원	85	1.1	2.0	0.9
3	충청	188	1.3	2.1	0.8
4	대구경북	187	1.2	1.7	0.5
5	호남	230	1.5	2.0	0.5
6	부울경	282	1.1	1.5	0.4
7	경인	118		0.3	0.3
	평균	1112	1.2	1.7	0.4

경북 1.2명 ▲부울경 1.1명 ▲강원권 1.1명 ▲제주권 1.0명 순으로 분석됐다. 지원권 전체 평균은 학교당 1.2명이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역의사제 증원(안)을 더하면 판도가 달라진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추가 확보되는 인원을 고려해 학교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제주권 1.6명 ▲강원권 0.9명 ▲충청권 0.8명 ▲대

구경북 0.5명 ▲호남권 0.5명 ▲부울경 0.4명 ▲경인권 0.3명으로 추정됐다. 기존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를 합산한 최종 구조로 보면, 제주권이 학교당 2.5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 2.1명 ▲호남권 2.0명 ▲강원권 2.0명 ▲대구경북 1.7명 ▲부울경 1.5명 ▲경인권 0.3명 순이다. 제주권 수치가 단순히 1.0과

1.6을 더한 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수점 반올림과 산정 대상 학교 수 기준이 달라 발생한 결과다. 경인권의 경우 현행 지역인재 전형 끼니 0명으로 산정돼 지역의사제 추가분 0.3명이 그대로 최종치에 반영됐다.

전국 평균은 학교당 1.7명으로 현행 1.2명보다 0.5명 늘어난다.

현행 대비 증가 폭은 제주권이 1.5명으로 가장 크고 ▲강원권 0.9명 ▲충청권 0.8명 ▲대구경북 0.5명 ▲호남권 0.5명 ▲부울경 0.4명 ▲경인권 0.3명 순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권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되고, 강원권과 충청권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로 지역 간 격차는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전형만 운영될 때는 학교당 합격 가능 인원이 최대 1.5명에서 최소 1.0명으로 0.5

명 차이에 그쳤지만, 지역의사제가 더 해지면 최대 2.5명에서 최소 0.3명으로 2.2명까지 벌어진다. 지방권 6개 권역 안에서도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 차이가 발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유불리 지역 정도에 따라 지원 경쟁률과 합격선 변동 폭이 커지고, 대학 간·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동일 대학 내에서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학 진학 이후에도 (중도 이탈이나 재지원, 미충원 충원 방식 등) 전형 간 이동이나 이탈 등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기존 지역인재 전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지원 패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i@metroseoul.co.kr

20개 대학,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교육·법무부, 비자정밀 심사대학 지정 우수대학, 심사 절차 간소화 등 혜택

협성대·금강대·대구한의대 등 20개 대학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사실상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유학생 증가에 따른 부실 관리와 불법체류 문제를 막기 위해 매년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학위과정 16개교와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 총 20개 대학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학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는 총 16개 대학이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일반대 4곳은 금강대, 수원가톨릭대, 중앙승가대, 협성대다. 전문대 3곳은 부산경상대학, 부산예술대학, 한영대학이다. 대학원대학 9곳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능인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치유상담대학원대, 한국상담대학원대, 합동신학대학원대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대구한의대와 상지대, 호원대 등 4개교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이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공인 어학능력 충족률 등 주요 관리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2012년도 입돼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돼 단계별 제재를 받는다.

반면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늘었다. 올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전년보다 각각 증가했으며, 이 중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인하대, 중앙대 등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대학에는 유학생 비자 심사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금(GKS) 참여 우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25만 3000명으로 2024년 20만 9000명보다 약 21% 늘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양적 확대와 함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급증에 맞춰 언어능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학업·생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한국 유학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고지대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설치 늘린다

서울시, 100곳까지 단계적 조성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이뤄져 있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서울 시민의 28.3%(2023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지와 대중교통, 공원, 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2단계 대상지는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를 시작으로 자치구 검토와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지 55곳 가운데 경사도 30% 이상 급경사 계단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와 생활 동선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검토해 10곳을 선정했다.

2단계 설치 대상지는 강북권 6곳과 서남권 4곳 등 총 10곳이다.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사당동 ▲금천구 시흥동 ▲마포구 신공덕동 ▲성동구 옥수동 ▲용산구 청암동 ▲종로구 무악동 ▲성북구 하월곡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



구로구 고척동 98-79.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후 예상 모습.

트럼프 차남, K-스타월드 호텔 부지 방문

글로벌 협력 가능성 탐진

하남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애리 트럼프 트럼프 그룹 총괄 부사장이 11일 시의 핵심 역점 사업인 ‘K-컬처 콤플렉스(K-스타월드)’ 호텔 사업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애리 트럼프 부사장은 전날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를 찾은 데 이어 연이틀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방문이 사업 타당성과 입지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려는 트럼프 그룹 측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안내에 나선 이현재 하남시장은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애리 트럼프 부사장을 맞아해 사업 청사진을 직접 설명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이현재 하남시장이 11일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애리 트럼프 그룹 총괄 부사장에게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예정 부지를 안내하며 사업의 핵심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했다. 시는 전망대(약 105m 높이)에서 한강변 부지를 조망하며 사업 비전과 입지적 강점, 글로벌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전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크림빵에 컵과일 얹고 커피 한잔… K-디저트 전초기지 구축

Q 르포

CU 성수디저트파크점

일반 점포대비 디저트 상품군 확대
‘DIY존’ 마련… 색다른 경험 제공
“두바이 시리즈 같은 히트상품 발굴”

“지난해 라면 라이브러리가 K-라면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이곳 성수디저트파크가 K-디저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1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을 연 ‘CU 성수디저트파크점’에서 만난 BGF 리테일 박정권 운영지원본부장은 이번 특화 점포의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편의점 업계가 성장 정체기를 맞은 가운데, CU는 디저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트렌드 최전선인 성수동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BGF리테일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내실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강조했다. 과거처럼 점포 수를 늘



CU 성수디저트파크점에 위치한 디저트를 모은 공간.

리는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는 판단에서다. CU는 올해 경영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상품 차별화’를 꼽았고, 그 중심에 디저트를 세웠다.

약 36평(120m²) 규모의 성수디저트파크점은 이러한 전략이 집약된 공간이다. 점포 내부는 ‘디저트 블라썸(Dessert Blossom)’을 콘셉트로, 기존 편의점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파스텔톤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일반 점포 대비 디저트 상품 구색을 30% 이상 대폭 강화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편의점 디

저트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게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매장 한편에 마련된 ‘DIY(Do It Yourself) 존’이다. 이곳에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와 휘핑 크림 디스펜서, 다양한 토핑 재료가 비치되어 있다. 단순히 포장된 빵을 사 먹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연세우유 크림빵을 반으로 갈라 과일을 넣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색다른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개발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과



매장에 마련된 컵과일 자판기. /손종욱 기자

거 4~5개월 걸리던 신상품 개발 기간을 최근 1~2개월로 단축했다. 실제로 CU는 최근 품질 대란을 일으킨 ‘두바이 초콜릿’ 트렌드를 가장 먼저 포착해 상품화에 성공했으며, 성수점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실험적인 디저트들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디저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료 라인업도 탄탄하다. CU는 자체 즉석 원두 커피 브랜드 ‘겟(get) 커피’의 원두를 한국인이 선호하는 고소한 맛으로 전면 리뉴얼했다. 리뉴얼 이후 커피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커피 구매 고객의 약 58%가 디저트를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점은 이러한 페어링 수요를 겨냥해 커피와 디저트의 연관 진열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냉동과일을 즉석에서 갈아주는 ‘리얼 스무디 기계’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 컵과일 자판기 등 차별화된 기들을 도입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BGF리테일 조준형 스낵식품팀 팀장은 “성수점은 전국의 1만8000여개 가맹점에 상품을 확산시키기 전 고객 반응을 살피는 테스트 베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CU는 이곳에서의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바이 초콜릿 시리즈’와 같은 히트 상품을 발굴하고 물량 수급 안정화를 거쳐 전국 가맹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U는 성수디저트파크점을 국내용 안테나숍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는 포부다. 이미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 진출 국가에서 연세우유 크림빵 등 한국 디저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롯데百, ‘아디다스 브랜드 센터’ 오픈

‘홈 오브 스포츠’ 콘셉트 적용 단독상품 판매·협업 컬렉션 공개

롯데백화점과 아디다스코리아가 손잡고 1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3층에 유통업계 최초의 ‘아디다스 롯데월드몰 브랜드센터’를 오픈한다. 약 210평(694m²)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매장은 쇼핑몰 내에 들어서는 국내 첫 브랜드센터로, 아디다스의 모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집대성한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다.

이번 브랜드센터는 아디다스의 글로벌 매장 콘셉트인 ‘홈 오브 스포츠(Home of Sports)’를 적용해 스포츠와 패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매장 전면에는 대형 디지털 파사드를, 천장에는 스크린을 설치해 롯데월드몰 전용 3D 영상 콘텐츠를 송출하며 브랜드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내부는 기능성에 특화된 ‘퍼포먼스 존’과 패션 중심의 ‘오리지널스 존’으로 구성됐다. 퍼포먼스 존은 러닝, 트레이닝, 죽구, 모터스포츠 등 종목별 라인을 ‘숍인숍(Shop-in-Shop)’ 형태로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오리지널스 존에



아디다스 롯데월드몰 브랜드센터 전경. /롯데백화점

서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패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매장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선 ‘체험형 콘텐츠’가 강점이다. 죽구 팬들을 위해 유니폼에 원하는 선수 이름과 등번호를 새길 수 있는 ‘저지 프린트존’을 운영하며, 최근 유행하는 ‘신꾸(신발 꾸미기)’ 트렌드에 맞춰 신발 액세서리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액세서리존’도 마련했다. 러닝 고객을 위해서는 ‘풋스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오픈을 기념해 잠실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상품과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됐다. 인기 러닝화 ‘아디제로 에보슬

(EVO SL)’의 신규 색상을 국내 단독으로 선발매하며, ‘아디다스X엔타이어스튜디오’ 협업 컬렉션도 오프라인 단독으로 공개한다.

오는 18일까지는 매장 입구에서 ‘아디제로 트라이얼존 팝업’이 열린다. 고객들은 초경량 러닝화 아디제로 시리즈를 직접 신고 롯데타운 잠실 일대를 배경으로 구현된 인터랙티브 러닝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러닝 크루가 롯데월드몰 내부를 달리며 리플릿을 배포하는 게릴라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매 고객에게는 금액대별로 노트, 키링, 레디백 등이 포함된 ‘뉴이어 기프트팩’을 증정한다. /손종욱 기자

롯데온 “설 특가 상품 놓치지 마세요”

여행 속박권·레저 입장권 등 구성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OTTE ON)이 오는 18일까지 막바지 설 연휴 준비를 위한 ‘설 명절, 특가에 올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명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속박권을 합리적인 가

격대에 선보인다. 먼저 제주 5성급 호텔인 스위트호텔 제주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야자수와 아름다운 조경으로 객실과 수영장을 리뉴얼 특가로 준비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국내 레저 입장권도 내세운다. 경주월드는 연휴 기간 동안 단독 특기를 선보이며, 전국 16개 지점을 보유한 히

어플레이파크는 6일간 한정 수량 및 선착순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유수풀 트랙을 보유한 캐리비안 베이는 오후 3시에 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캐리비안베이 종일권을 비롯해 에버랜드 종일권과 오후권 등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대용량 생활·리빙·기공식품도 선보인다. 크리넥스, 샘표, 벤앤제리스, 삼립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기획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다. /손종욱 기자

슈거 주질 리뉴얼 및 2024년 패키지 리뉴얼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빨빠르게 대응하고,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활동으로 MZ 소비자와 지속 소통해온 것이 주효하다는 분석이다.

하이트진로마케팅실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만의 100년 주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깔끔한 맛을 구현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진로는 오리지널 레시피 기반의 초깔끔한 맛과 함께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칠성음료, 칠성몰 ‘2% 데이’ 행사

부족할 때 구매 고객 중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2% 부족할 때 바이탈 레몬라임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2% 부족할 때’ 전 제품을 2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 59분까지 구매한 고객에게는 칠성몰 포인트 2000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칠성몰을 통해 2% 부족할 때에 대한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2% 부족할 때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고 칠성몰을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 프로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K-제약 '선택과 집중' 전략... 신약개발 자회사 역할 커져

한국콜마 'HK이노엔'

케이캡 전문의약품 사업 견인

제일약품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매출·기술이전 수익 주효

일동제약 영업익 195억, 49%↑

유노비아 출범 기점 효율화 효과

유한양행·종근당 지속가능 전략



/유토이미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이 제작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중 대형 제약사들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체 신약 확보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확보하는 통로로 서 전문 자회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 제약사업자회사 HK이노엔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연간 매출 1조 원대, 영업이익 1000억원대에 진입했다.

HK이노엔의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해 1조632억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늘어 1109억원이다. 이번 호실적은 국산 신약 케이캡, 주력 품목 수액제, 코프로모션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사업 전반에서의 판매 호조 성과다.

특히 '케이캡'은 HK이노엔의 전문의약품 사업 전반을 견인해 해당 비중은 20%에 달한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국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2179억원 규모의 처방 실적을 올렸고, 앞서 2023년 1582억원, 2024년 1969억원 등으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제일약품의 연구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도 고성장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5년 실적으

로 매출 534억원과 영업이익 12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0%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영업손실 48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이러한 실적 성장에는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판매 매출과 기술이전 마일스톤 수익이 주효했다.

무엇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 매출을 캐시카우로 R&D 재투자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자큐보 구강붕해정(ODT) 제형이 발매되고 적응증에는 위궤양 적응증이 추가되면

서 자큐보 수익성은 지속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자큐보는 올해 국내 매출만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후속 항암제인 네수파립 임상개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도 연구개발 구조 재편으로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

일동제약은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5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95억원으로 4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3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124억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일동제약은 2023년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 출범 등을 기점으로 경영 전반에서 효율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올해는 연구개발 회사와의 협력 체제를 극대화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재준 신임 대표는 기존 윤웅섭 대표와 일동제약을 함께 이끌게 됐다.

유노비아의 경우, 대원제약과 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소화성궤양치료제 '파도프리잔'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비만·당뇨를 겨냥한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ID110521156'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전통 대형 제약사인 유한양행, 종근당 등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유한양행은 'NewCo 설립 모델'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향암 분야에서 알리지, MASH,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등을 핵심 과제로 도출할 계획이며 특정 파이프라인에 최적화된 독립법인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종근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근당은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아젤라'를 신설했다.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 임상 진행, 기술수출 및 상용화 등을 맡는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리스까지 공존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약개발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사업 효율성 강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에피스 '오픈비즈' 특허분쟁 해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美 합의·라이선스 계약 체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특허 분쟁을 마무리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안과질환 치료제 '오픈비즈'(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 리제네론, 바이엘과 2mg 제형에 대한 미국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오픈비즈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유럽 등에 이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특허 합의를 마친데 이어 미국 계약 체결로 오픈비즈에 대한 모든 글로벌 특허 문제를 해소했다.

오픈비즈는 지난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아필리부'라는 제품명으로 특허 분쟁이 모두 해소됐다"며 "당사 제품 출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배민B마트에 '셀파렉스' 입점

멀티비타민 등 대표제품 4종 선봬
1개월 분량… 5000원 균일가 적용

동아제약은 배달의민족 키커머스 서비스 배민B마트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가 신규 입점한다고 12일 밝혔다. 브랜드 대표 제품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지아잔틴,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등 총 4종이 선보여진다.

배민B마트는 주문 후 짧은 시간 내 배송 가능한 서비스를 갖춰, 해당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식사 후나 야근 중 갑자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건강 관리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번 셀파렉스 4종은 주요 건강 고민 별로 구성됐다. 멀티비타민은 기초 영양 보충을,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관리를, 루테인지아잔틴은 눈 건강을,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는 혈행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각 제품은 1개월 섭취 분량으로 전 품목 5000원 균일가가 적용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미리 구매해 두는 제품으로 인식돼 온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즉시형 헬스케어 제품'으로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플랫폼과 협업해 헬스케어 경험을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더마 브랜드 'CNP' 美 '얼타 뷰티' 입점

LG생활건강은 미국 대형 화장품 유통사 '얼타 뷰티' 온·오프라인 매장에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가 입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미국 얼타 뷰티에서 CNP 대표 제품군인 '프로폴리스', '더마 앤서' 등을 공개했다. 우선 온라인에서 'CNP 더마 앤서 액티브 부스트 앰플', 'CNP 더마 앤서 베리어 리셋 크림' 등을 선보여 기초 스킨케어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아울러 온라인 입점 제품 중 'CNP 프로폴리스 립세리' 6종은 얼타 뷰티 14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된다. 프로폴리스 립세리은 2024년 5월부터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해 왔다.

LG생활건강은 '고성장 지역 집중 육성'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채널 성과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진출해 북미 전역을 공략한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지큐 볼 쇼' 공식 스폰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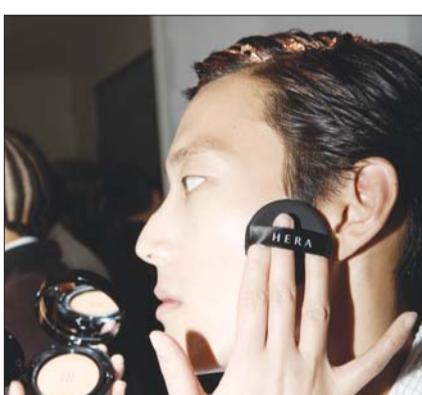
글로벌 K뷰티 정체성 확장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리전 오브 아너 박물관에서 열린 '지큐 볼 톰브라운 2026 가을 컬렉션 쇼'에 헤라가 공식 메이크업 스폰서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큐 볼은 세계적인 패션 잡지 지큐(GQ)가 미국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승전(슈퍼 볼 LX) 주간에 개최한 대규모 행사다. 특히 미국 패션을 대표하는 브랜드 톰브라운이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패션·스포츠·예술을 결합한 연극적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쇼의 메이크업 감독은 글로벌 패션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론 드 메이가 맡았다.

아론 드 메이는 로댕 조각상을 구현한 메이크업으로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운 뷰티 룩을 표현했고 이를 위해 헤라 제품을 핵심 도구로 활용했다.



'지큐 볼 톰브라운 2026 가을 컬렉션 쇼'에서 모델이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헤라 대표 제품인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무결점의 매끄러운 블러 색된 스킨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핵심 메이크업 '브론즈 글리터 립'은 입술 위에 브론즈 글리터를 얹은 후 '센슈얼 누드 글로스'를 더해 입체적인 광택감을 갖춘 살아 있는 하이파션 룩을 보여줬다. /이청하 기자

매일유업 '셀렉스', 中 최대 헬스 플랫폼 진출

'징동헬스'에 단독 브랜드관 공식입점

매일유업의 성인영양식 브랜드 '셀렉스'가 중국 최대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인 '징동헬스'에 단독 브랜드관으로 공식 입점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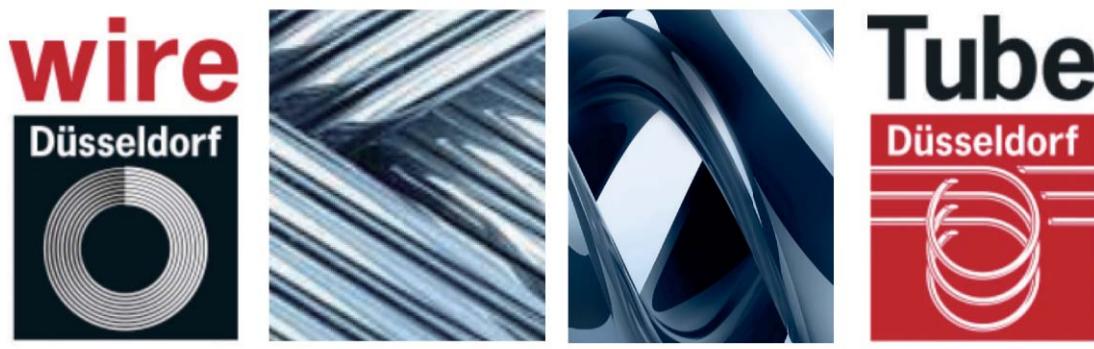
매일유업은 최근 뉴트리션 사업의 글로벌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인매일헬스 뉴트리션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그 첫 단계로 징동헬스 글로벌 직구 판매에 나섰다. 통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셀렉스'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셀렉스'는 2018년 매일시카페니아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에 근거한 고객맞춤형 평생 건강관리'를 목표로 출범해 국내 성인영양식 시장을 개척해왔다. 앞으로는 이번 징동헬스 공식

입점을 통한 직구 판매로 중국 소비자들도 셀렉스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징동헬스에 론칭한 주력 판매상품은 단백질에 특화된 셀렉스 제품 4종이다. 대표 제품인 '셀렉스 프로틴 락토프리 플러스(용량 608g·사진)'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을 받은 균형 단백질(저분자유청단백·가수분해물)을 함유해 균형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며, 유당을 제거해 평소 유제품을 먹기 불편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OME&CONNECT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찰단 모집

- 만네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뛰어넘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식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섬외증), CD.W EJP, Bilstein trade KG(섬외증), 막스플랑연구소(섬외증)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섬외증), CD.W EJP, Bilstein trade KG(섬외증), 막스플랑연구소(섬외증)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라마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둠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번화한 자일거리 - 뢰마광장과 박물관 지구를 잇는 철조 소재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 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 고성능 모니터로 쇼트트랙 오심 막는다

밀라노 올림픽 경기장에 모니터 제공
4K UHD 해상도, 최적의 판정 환경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에 고성능 모니터를 제공해 심판진의 공정한 판단과 생생한 현장 중계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제품으로 선정된 삼성 모니터를 쇼트트랙 경기장 '필드 오브 플레이' 구역과 판정을 심사하는 '비디오 룸'에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심판이 비디오 판정을 진행하는 '필드 오브 플레이' 구역에는 37형 모니터 '류피니티 S8(S80UD)'가 설치됐다. 현장에 제공되는 '류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 필드 오브 플레이 구역에 삼성전자 37형 모니터 '류피니티 S8(S80UD)'가 설치됐다. /삼성전자

모니터 S8'은 37형 크기로 4K UHD (3,840×2,160) 해상도와 16:9 화면비를 갖춰 심판진에게 최적의 판정 환경을 제

공한다. 기존 32형 대비 확장된 화면은 동일한 배율에서도 경기 장면의 세부 요소를 보다 크게 표시해, 중요한 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H DR10 기반의 폭넓은 색 표현력과 정밀한 명암 표현을 바탕으로 접촉 순간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구현해, 판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공식 올림픽 방송사인 'OBS'가 운영하는 '비디오 룸'에는 '오디세이 아크'가 설치됐다.

'오디세이 아크'는 55형 대화면에 1,000R 곡률의 커브드 스크린을 적용해 왜곡을 최소화하고 몰입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4K UHD 해상도(3840×2160)와 1ms(GtG)의 빠른 응답속도를 지원해 쾌속 질주하는 쇼트트랙 경기의 역동적인 장면을 선명하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T, 설 맞이 전국 '온 나눔' 봉사 활동

KT가 설을 맞아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온(溫)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KT 광화문 본사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6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배식 봉사를 했다. /KT



한진, '설 특수기' 현장 안전경영 강화

한진이 '설 특수기'를 맞아 현장 안전 경영 강화와 원활한 물류 수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한진 노사 협약 대표이사 사장과 조현민 사장이 대전메가허브 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진



저축은행중앙회, 어르신에게 떡국 나눔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 마포구 아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훈제어 및 주방 비품 등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앞줄 가운데)과 임직원들. /저축은행중앙회

롯데멤버스, 지자체와 지역발전 협력

공공분야 사업 발굴 등 중점

롯데멤버스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2G(기업·정부 간 거래)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관광과 고향 사랑기부제 활성화, 공공분야 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롯데멤버스는 보유한 4300만 엘포인트 회원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활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멤버스 김혜주 대표(왼쪽)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임택 상임회장(광주 동구청장). /롯데멤버스

구체적으로 롯데멤버스는 엘포인트 앱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담례품 및 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웨이센 '인공지능 내시경' 출시

보건산업진흥원, 전략적 업무협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랍에미리트 지사는 인공지능(AI) 기반 메드테크 기업 웨이센이 세계 3대 의료전시회 'W HX 2026' 현장에서 아랍에미리트 의료 기기 전문회사 다파르 메디컬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동 시장에서 인공지능 내시경 '웨이메드 앤도' 사업 확대를 공동 추진한다.

다파르 메디컬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유통 전문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 보건부 산하 의료기관, SEH A, DHA, EHS 등 주요 공공 병원 그룹, 민간 병원, 전문 클리닉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웨이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현지 주요 병원 및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웨이메드 앤도' 진출에 속도를 내며 이를 거점으로 중동 전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시몬스, 이천시에 생활용품 기부 '선행'

4000만 원 상당 전달

시몬스가 지역 사회를 위해 8년간 총 16회의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몬스 침대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올해도 경기도 이천 지역사회를 위해 40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몬스가 지금까지 이천 지역사회에 기부한 생활용품 규모는 6억 원이 훌쩍 넘는다.

시몬스 침대는 지난 2018년부터 설과 추석 때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



지난 11일 경기 이천시청에서 열린 '행복한 동행 기تك식'에서 시몬스 이종성 부시장(오른쪽)이 김경희 이천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몬스

기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이천 지역사회에 기탁해왔다. /김승호 기자 baba@

hy, '이뮤노바이옴'과 전략적 사업제휴

개인맞춤형 장 건강 솔루션 개발

hy가 '이뮤노바이옴'과 전략적 사업제휴를 체결했다.

hy는 협업을 계기로 자사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역량과 이뮤노바이옴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개인맞춤형 장(腸) 건강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이뮤노바이옴은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 플랫폼 '아바티옴(Avatiome)'과 마이크로바이옴 진단·맞춤형 추천 플랫폼 '아이엠버트(I M.BERT)'를 보유하고 있다. 아바티옴은 인체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전 임상 모델로, 면역 및 장내 미생물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구 시간 단축

과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이엠버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장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개인별 장내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플랫폼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사전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상태 예측 모델을 구축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및 건강 기능식품 추천이 가능하다.

양사는 분변 검진 키트를 활용한 장내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건강 기능식품 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병원 검진 데이터와 연계한 진단 모델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의 장 건강 솔루션과 메디컬 푸드 영역으로 협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헬로비전, 취약계층 특산물 지원

LG헬로비전은 설 명절을 맞아 전남 해남군 척약계층에 지역 특산물로 구성한 '설 명절 꾸러미'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전남 해남군 척약계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꾸러미 전달식'에서 명현관 해남군수(가운데)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G헬로비전



교원 웰스, 앰배서더에 신애라 발탁

교원 웰스(Wells)가 브랜드 앰배서더로 배우 신애라를 발탁했다. 12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올해 웰에이징 트렌드에 맞춰 건강한 삶 전반을 아우르는 웰니스 브랜드로의 확장을 추진한다. /교원 웰스

오늘의 날씨

2월
13일 (금)
음력 : 12월 26일

수도권 날씨

2 ~ 1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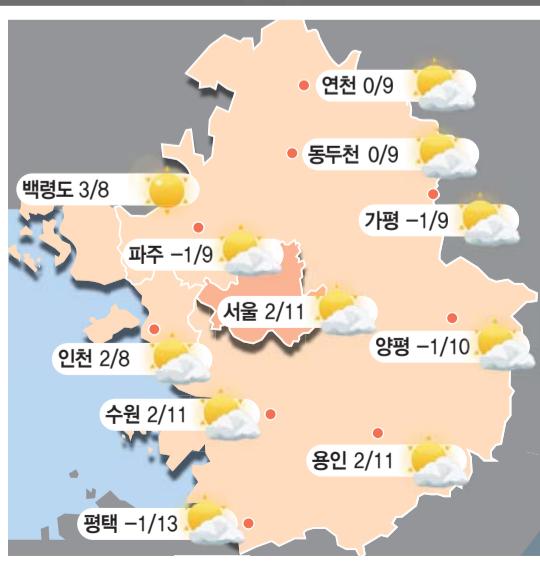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 (주) www.kweather.co.kr

한수원, 시장 장보기 행사 누적 7억 기부

물품 구매해 복지시설 전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1일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웃 나눔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수원 직원 봉사자 약 40명과 경주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아동센터 등 16개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각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2016년 시작된 한수원의 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이번이 90회째로, 누적 기부액은 약 7억 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경주 본사를 비롯해 원자력·수력·양수발전소 등 전국 사업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사적으로 약 3억 원 규모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고

▲김정근(오스코텍 창립자·고문)씨 별세=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B2 17호실, 발인 15일, 장지 경기도 광주시 시안가족묘원. 02-3410-3151, 13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설 물가와 서민 지갑



이정희의

西村브리핑

설을 앞둔 서민들 마음이 무겁다. 통계상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이라지만 설 명절을 앞둔 체감 물가는 냉랭하다. 통계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설 밑 서민들 지갑을 얼어 붙게 하고 있다. 설 차례상에 필수적인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식품 물가는 두 달 연속 3.9% 상승하며 체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해 지난해 6월(5.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값은 지난해보다 15% 넘게 비싸져서 20kg이 평균 6만원을 넘어섰다. 무와 배추 가격은 1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상추(92.9%), 오이(21.3%) 등 일부 채소류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과(5.8%), 포도(23.9%), 꿀(7.4%) 등 과일 가격도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축산물 가격은 4.1%, 수산물은 5.9%나 올랐다. 고등어와 조기 가격은 각각 11.7%, 21.0% 급등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도 7.2% 뛰었다.

설 물가가 문제인 건 단지 비싸서가 아

니다. 비싼 것이 '자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쌀과 달걀, 채소와 기름, 가공식품과 외식비처럼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품목이 조금씩 오르면, 살림살이가 꽉꽉해진다. 설은 그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다. 평소엔 나눠서 사던 것을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사야 한다. 그래서 같은 상승률이라도 설 앞에서는 더 크게 느껴진다. 체감 물가가 민심을 좌우한다는 말이 이때 실감난다.

소비심리 위축은 그 위에 덮이는 또 하나의 그림자다. 금리와 대출, 고용과 소득에 대한 걱정이 '지출의 브레이크'를 강하게 만든다. 소비는 미래를 낙관할 때 열리지만, 요즘은 미래가 '확신'보다 '경계'에 가깝다. 그래서 명절 특수도 예전 같지 않다. 사과나 배 등 과일은 박스가 아니라 날개로, 조기와 소고기 등 차례용 품목은 크기와 질보다 가격이 짚 것으로 바뀐다. 지갑이 닫히면 동네 상권도 얼어붙고, 자영업자의 매출은 더 빨리 꺾인다. 물가 상승이 소비를 줄이고, 소비 감소가 경기 둔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설탕·밀가루·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호되게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인지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설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11일 민생물가를 관리하는 장관급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발표'와 '호통'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명절 물가 대책은 '발표'가 아니라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 실제 가격 안정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와 집중도가 중요하다. 성수품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왜곡과 과도한 인상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외식 비용의 구조를 건드려야 한다. 임대료, 인건비, 수수료가 한 번에 높려 내려오긴 어렵지만 작은 인하의 축적이 결국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다. 생활물가의 고공행진을 방지하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국민들이 장바구니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의 의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lh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13일 (음 12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일이 술술 풀리니 얻는 것이 많습니다. 60년생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72년생 집안이 평온하니 내 마음도 편합니다. 84년생 외출이나 출장은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49년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1년생 건강에 무리가 있으니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73년생 관계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85년생 가까운 곳은 길하지만 먼 여행은 피하세요.



50년생 오심을 생각했는데 백을 얻게 됩니다. 62년생 운이 바뀌니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74년생 힘들겠지만 다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86년생 친구들과 어울리니 마음이 즐겁습니다.



51년생 길함과 흥함이 교차하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63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75년생 어렵게 얻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87년생 겸손해야 주위의 시샘을 피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지금 조금 부족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64년생 동료에게 덕을 베풀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원하던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88년생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하세요.



53년생 여유와 기분전환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65년생 결정해야 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77년생 마음과 몸이 따로 노니 심신이 힘듭니다. 89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곧 기회가 옵니다.



54년생 큰 일을 도모하려면 작은 것은 포용해야 합니다. 66년생 갈등이 있더라도 신념있게 추진하세요. 78년생 능력이 잘 발휘되어 인정받게 됩니다. 90년생 고진감래라!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6년생 금전이나 문서 거래는 금물입니다. 68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0년생 쓸데없는 데 힘을 쓰는 격입니다. 92년생 사고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7년생 평소 하던 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69년생 지금은 어렵지만 곧 극복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마세요. 81년생 서두르지 말고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93년생 외출보다는 쉬는게 좋습니다.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59년생 주위의 말보다는 소신을 지키세요. 71년생 주위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83년생 자신감이 충만하니 기운도 충만합니다. 95년생 주위의 시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과 혁명, K제약 딜레마



기자 수첩

이정하
(유통&라이프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논란이다. 논란 중심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기준 53%대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놓여 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약값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 회사들이 복제약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약값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 회사들이 복제약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다면 국내 제약 산업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속도와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혁신'이라 부르지만 현장에

선 '혁명'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도 제네릭이라는 '캐시카우'가 베풀목이 돼왔다. 이 현금흐름을 끊어내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은 혁신이 될 수 없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바꾸거나 고쳐 아주 새롭게 함이다. 파괴가 아니다. 국어 사전에서 혁명을 찾아보면,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산업을 밀어붙이는 '혁명'이 된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공백일 수 있다.

물론 같은 제약 업계 내부에서도 일각에선 "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며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 체질 개선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

약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다.

어쩌면 국내 제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존재는 혁신 자체일 수 있다.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새 가치를 만드는 힘은 오리지널 특히가 만료된 약을 복제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발휘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은 혁명과 같은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고 실패를 감수하지 않으면 성공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제약 산업에게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캐시카우 없이, 즉 혁신 없이, 신약 개발이라는 창조를 위한 혁명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혁신 그리고 국가 미래와 K제약 생존을 위해서는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기업의 능동적인 방안과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mee236@



김상회의四季

병오년 인연법

신생아 출생율이 25만명을 넘을 것 같다, 가뭄에 단비 내리듯 반가운 소식이다. 결혼율이 떨어지니 신생아 출산율도 저조했는데 청춘남녀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다. 결혼을 염두에 두는 남녀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염두에 둔 분들이라면 병오년 운기와 자신의 사주구조를 비춰본다면 분명 참고가 될 점이 적지 않다. 자신의 일주의 지지와 연지가 병오년과 합이 드는지 아니면 혼종해파(刑衝害破)가 드는지 살펴보고, 만나는 인연들과 지지를 살펴보는 것도 기하다. 보통의 경우, 병오년이 오면 반가운 떠들은 호랑이띠와 개띠다. 우유에 물 탄 듯 잘 섞인다. 기분도 잘 맞고 의기투합하기에 좋다. 양띠도 서로 케미가 잘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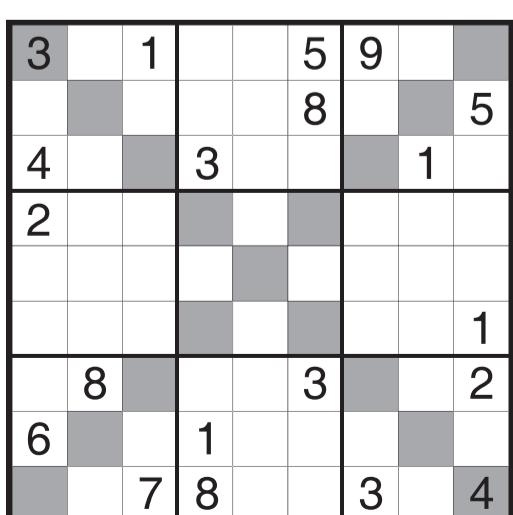
반대로 쥐띠 토끼띠 닭띠는 조심해서 손해를 볼 것이 없다. 소띠 역시 부딪히는 일을 삼가야 한다. 괜히 미운털이 박히는 형국이다. 이것은 남녀관계나 사업 파트너, 직장 상하(上下)나 동료 관계에도 적용해 봄 직하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다. 사람마다 태고난 연월일시 사주팔자는 획일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한다. 떠와의 상충이라 해서 반드시 다 험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충이 들어와서 이이제이(以夷制夷)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통변의 학문이라 말하는 것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까지 있게 된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역시 자신에게 긍정의 기운을 담뿍 받을 수 있는 해에 시동을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울 때 길을 떠나는 것보다 햇살 활할 때 가는 것이 수월한 것과 같은 이치다. 갈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비바람 속에서 갈 일이 아니다. 같은 일을 함께 공연히 힘을 빼서 좋을 것이 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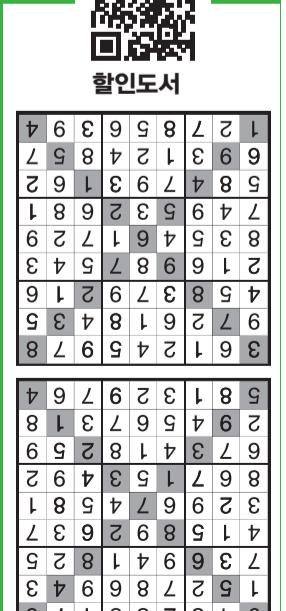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군데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854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0111	2017년 3월 09일 제 1958 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짭잘하게, 때론 동전을 훑듯… 와인 ‘미네랄’이 뭐길래



“와인이 이렇게 짭잘하니 음식에는 간을 안해도 먹을 수 있겠어.”

굵은 천일염같은 짭잘함이나 조금만 더 익으면 좋겠다 싶을 상태의 천혜향 혹은 자동의 씹쌀한 신맛이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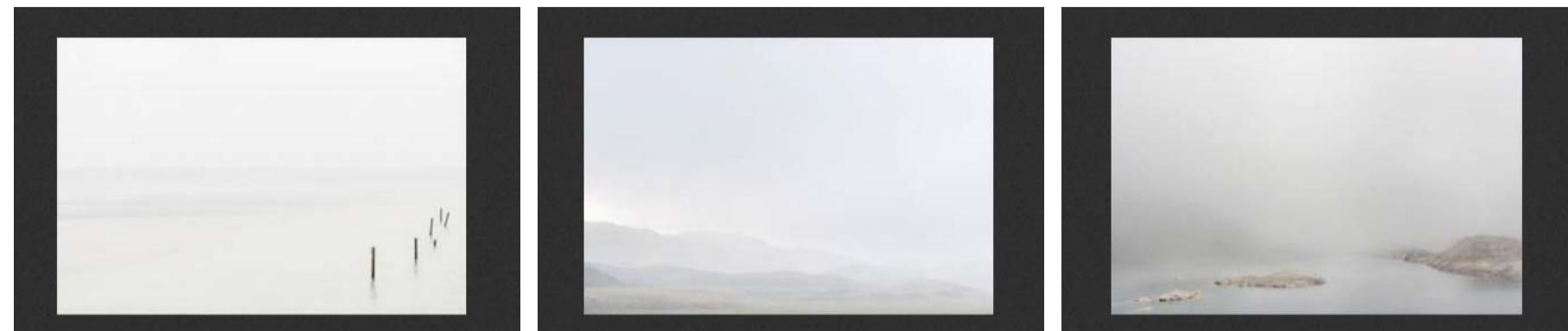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젖은 돌에 허를 대면 이런 맛이 날까싶은, 또는 강가 자갈이 떠오르는 미묘한 향이다.

이번엔 연기다. 부싯돌의 향이 잘 떠 오르지 않는다면 막연 성냥에서 나는 연기에 코를 집중해본다.

돌에도 혀를 대봤으니 연필심인 흑연, 십원짜리 동전은 아예 훑어보자. 혀에서마저 서늘하게 느껴지는 금속성의 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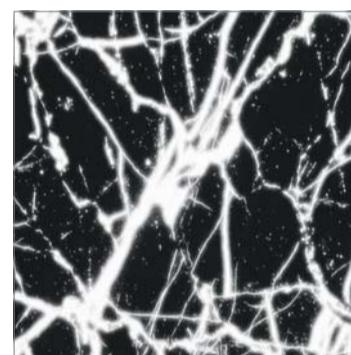
하나하나씩 보면 전혀 다른 성질인데 와인에서 경험한 것이라면 한 단어로 ‘통’ 칠 수 있다. 미네랄(Mineral) 느낌, 혹은 미네랄리티(Minerality).

그만큼 모호한 단어인데 또 막상 와인을 마셔보면 이게 미네랄리티구나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엉덩이부터 들이밀고 자리잡는 것이 문제다. 국제와인챌린지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와인의 미네랄리티를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사진들. 왼쪽부터 바다, 땅, 연기의 미네랄리티.

/부르고뉴 와인협회(BIVB)



지난 2017년 열린 순수한 샤블리 와인을 예술로 표현하는 공모전에서 우승한 작품, 샤블리 와인의 미네랄리티를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IWC)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4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테이스팅 노트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를 설문조사했더니 1위가 ‘미네랄리티’였다. 의미 전달을 정확히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와인을 말할 때 미네랄리티란 표현을 쓴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와인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품질이 좋다고 평가받는 와인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미네랄 풍미나 향은 와인의 가격을 높이는 요소가 됐다.

포도를 진득하게 푹 익히기 보다는 산도를 적절히 살리고, 오크 사용을 절제하는 분위기도 미네랄리티를 부각시켰다. 과실과 오크향이 절제된 와인 일수록 미네랄 풍미가 잘 느껴지니 말 했다.

이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어떤 특정 향이나 맛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각 경험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존재를 받아들였다면 어디서 비롯됐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또 수수께끼다. 알다시피 돌은 아무 맛도 없다. 짭잘하다면 염분이 있어야 하는데 와인에서는 나트륨 성분이 없고 포도나무는 염분을 뺏아들이지 않는다.

IWC의 공동 의장인 제이미 구드 박사는 “우리가 와인에서 가죽향이 난다고 하거나 체리향이 난다고 할 때 와인에 실제로 가죽이나 체리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그렇다면 미네랄리티도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맛을 표현하는 일종의 그림 지도와 같다”고 전 했다.

다면 공통적이라면 풍성한 미네랄리는 독특한 테루아의 와인에서 찾아보기 쉽다는 점이다.

부르고뉴 와인협회(BIVB)는 “흔히 암석이라 불리는 지질학적 광물은 생수 병에 표기된 것과 같은 이온 형태의 영양 미네랄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물론 와인에도 미네랄 화합물이 들어있지만 그 농도가 너무 낮아 인간의 미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으며, 설령 맛이 있다 하더라도 미각으로 느낄 수 없다. 코나 입으로 느껴지는 미네랄 향은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샤르도네는 어디에서나 재배되지만 샤블리에서처럼 미네랄 풍미가 발달하지는 않는다”며 “독특한 미네랄리는 토양과 샤르도네 포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상암점 리뉴얼… 특별관 확대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개관 기준 상영관, 프리미엄 좌석으로



메가박스가 서울 서북권 핵심 거점인 자미디어콘텐트 산업의 중심지인 상암에 올해 첫 지점 리뉴얼을 진행한다.

메가박스는 상암월드컵경기장점에 영화 장면 속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을 오는 12일 개관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7개 상영관을 프리미엄 좌석으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르 리클라이너’ 특별관으로 순차 업그레이드한다.

‘돌비비전+애트모스’는 돌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와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이다.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는 일반 프로젝터 대비 두 배 이상 밝기와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통해 풍부하고 깊은 색감을 제공하며, 돌비 애트모스는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이번 상암월드컵경기장점 리뉴얼은 메가박스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온 특별관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지난해 구의 이스트풀점에 아시아 최초로 도입

된 이후 상암월드컵경기장점까지 총 5개로 확대됐다. ‘르 리클라이너’ 관은 플래그십 지점에서 시작해 각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메가박스 특별관은 집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극장 경험을 제공하며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메가박스의 기술특별관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아바타: 불과 재’의 경우 전작 대비 돌비 특별관 관객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메가박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특별관 확대를 점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메가박스 상암점은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먼저, 상암점을 선호지점으로 등록하면 ‘르 리클라이너’ 1만원 관람 쿠폰을, ‘돌비 비전+애트모스’ 첫 관객에게 전용 1만5000원 관람 쿠폰을 지급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쿠팡플레이 ‘자매치킨’ 2월 라인업 공개

스타손님 초대해 ‘케미 토크쇼’ 펼쳐 첫 손님은 이성경·채종협·김원훈

쿠팡플레이의 예능프로그램인 ‘자매치킨’이 2월 한 달 동안 출연을 확정지은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을 12일 공개했다.

자매치킨은 이수지, 정이랑, 김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동호인 성지 치킨집에 찾아온 스타 손님들과 펼치는 ‘치키타카’ 케미 토크쇼다. 지난해 뜨거운 화제

를 불러일으킨 ‘자매다방’의 세계관을 확장한 후속작으로, 다방을 꾸려가는 큰 언니들의 쌍둥이 동생과 막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매주 스타 손님들과 케미를 선보이는 설정이다.

오는 14일 오후 4시 공개되는 첫화에는 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의 이성경과 채종협, 그리고 개그맨 김원훈이 자매치킨을 방문한다. 2화에는 로맨스 릴리 드라마 ‘세이렌’의 박민영과 위하준, 배우 권혁수와 개그맨 김규원이 출

격한다. 3화에는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 물주 되는 법’의 하정우,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이 치킨집을 찾는다.

자매치킨은 다가오는 14일 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김보민 기자 kbm@

KT지니뮤직, 10대 전용 음악이용권 출시

만 14~18세 전용 멤버십 ‘지니 틴틴’ 월 3960원…무제한 음악 스트리밍

KT지니뮤직은 음악 플랫폼 업계 최초로 10대 음악 이용권 ‘지니 틴틴’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니 틴틴은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월 3960원(VAT 포함)으로 무제한 음악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지니 틴틴 이용자가 만 19세가 되는

생일 이후의 이용 요금은 정상가인 8140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지니 틴틴은 5년간 이용할 경우 일반 음악 이용권 보다 약 2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KT지니뮤직의 홍세희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새롭게 출시한 ‘지니 틴틴’ 이용권은 10대들의 현실적인 소비 여건을 반영해 음악 이용권 가격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상품”이라며 “당사는 10대들이 음악 플랫폼 지니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는

음악 감상 무제한 지니 틴틴이 쓴다!

KT지니뮤직은 음악 플랫폼 업계 최초로 10대 음악 이용권 ‘지니 틴틴’을 출시했다. /KT지니뮤직

며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김보민 기자



▲트럼프 “주지사 연례 만찬에 민주당 소속 2명 초청 안 해”

▲1월 중국 신차 234만대 판매…“3.2% ↓·보조 축소 영향”

/사진 뉴시스

▲인권단체 “이란 시위 사망자 최소 7000명”… 공식 발표의 약 2배

▲日, 나미비아서 중희토류 상당량 확인…권익 확보 추진

▲주한 리 대사 “한러 관계 개선, 韓정부에 달려… 독자제재 해제해야”

▲중앙아 국가들 잇단 ‘스마트 시티’ 건설…“경제적 탈러시아화”



CU
성수디저트파크점
디저트 전초기지로
L1

K-제약
신약개발 자회사
역할 커져
L2



조선·해양 투자확대, 수익 다각화… 지역과 ‘동반 성장’

2026 W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BNK 금융그룹

BNK금융이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정부의 동남권 해양 수도권 조성 정책에 발맞춘 ‘지역 중심 경영’을 추진한다. 해운·조선·해상플랜트 등 지역 주요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한계 기업을 지원해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 은행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업무 효율화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디지털전환(AX)도 속도를 낸다.

◆ ‘지역금융’ ‘지역 동반성장’ 노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역금융그룹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정부정책에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해양·물류·인프라 등 특화산업에서 금융허브 역할을 맡고, 대기업과 협력사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를 정립해 금융을 통한 지역 내 부가가치 재생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인구 감소·산업 유출 등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지역과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에 거점을 둔 다른 금융지주(iM·JB)들이 은행 계열사의 시중은행 전환, 수도권 진출 확대 등으로 기존 거점지역 바깥에서 영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BNK금융의 강점은 부울경 지역 내에 촘촘하게 갖춰진 기업대출 영업망이다. 작년 상반기 기준 BNK금융의 전체 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다. 같은 기간 주요 시중은행의 51%와 비교해 기업 대출 비중이 크다.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를 넘는다. 시중은행보다 월등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영업 노하우를 갖춘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본격화했다. 북극향로 시대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BNK금융

**지역 특화산업 ‘금융허브’ 역할 맡아
해수부 이전 맞춰 해상물류 성장 도와
동남권 해양수도권 정책 목표에 동참**

**생산적 금융협의회 출범…지역 지원
지역 핵심산업·한계기업 등 21조 투자**

**은행 예대마진 중심 매출구조 벗어나
투자전문화, 벤처금융 확대 등 다각화**

**디지털 전환 가속… 업무효율화 추진
AI·가상자산 등 신규 먹거리 탐색도**

약 865억원(11.9%)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자이익의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빠르게 늘고 대손 비용이 감소하는 등 적극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이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비이자이익증대를 통한 영업이익 확대는 BNK금융의 과제로 남았다. BNK금융은 매출에서 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해 부산·경남은행의 매출 비중은 약 89.8%다.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은행 의존도와 비슷하지만,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중소기업·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크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은행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건전성 우려가 큰 지방은행은 대출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BNK금융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은행 부문에서는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투자 전문화를 추진하고, 비은행 부문에서는 구조화금융과 벤처금융을 확대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빈대인 회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의 기류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이자이익과 담보자산 중심의 영업 방식을 빠르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라며 “은행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기업 투자와 전통 제조업의 전환 지원 등 투자 전문화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비은행은 구조화금융·VC를 강화해 그룹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BNK금융은 업무 효율화와 미래 먹거리 탐색을 위한 ‘디지털 전환(AX)’도 지속 한다.

BNK금융은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 당시 ‘그룹고객 가치혁신부문’을 ‘그룹AI 미래 가치부문’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기획부와 AI사업팀을 통합한 ‘AI디지털전략부’를 설치했다.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연구조직을 출범해, AI·가상자산 등 신규 먹거리 탐색에도 돌입했다.

빈대인 회장은 “AI와 디지털 경쟁력은 금융사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부상했다”라면서 “AI를 업무 효율화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분석, 투자·심사,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전반에 적용해 고객 이해와 자본 배분의 정밀도를 높이는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이원화된 전산망도 단계적으로 통일한다. 현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별도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BNK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전산망을 통합할 예정으로, 통합을 통해 매년 약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본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부산 문현로 BNK부산은행 본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3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상호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슈퍼카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법적 대응 예고
“악의적 허위 사실 적시”
▲감독은 잘리고, 주장은 징계받고…손흥민 떠난
토트넘 ‘풍비박산’

/사진 뉴시스

▲손미대전 무산되나…MLS 개막전서 손흥민 만
나는 메시 ‘부상’
▲‘월드컵 모드’ 흥명보호, 내달 코트디부아르·오
스트리아와 ‘풀 스파링’

▲백승호도 다쳤다…월드컵 앞둔 흥명보호, 종원
부상 병동
▲‘골절 부상’ 린지 본, 직접 전한 소식…“3번째
수술도 성공적”